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6499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15년 8월
석사학위논문

다문화가족의 문화·심리적 요인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경 영 학 과
보티 펑후엔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문화가족의 문화 · 심리적 요인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ultural·Psychological Factors on Acculturative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in the Multicultural Family

2015년 8월 25일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경 영 학 과

보티 펑후엔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문화가족의 문화·심리적 요인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정 형 식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4월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경 영 학 과

보티 펑후엔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보티 펑후엔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종 호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강 성 호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 형 식	인

2015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 5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 6

제2장 이론적 배경 ····· 7

제1절 국제결혼 이주여성 현황 ····· 7

제2절 문화·심리적 거리 및 문화적응성 ····· 9

1. 문화·심리적 거리 ····· 9

2. 문화적응성 ····· 9

제3절 문화적응 스트레스 ····· 11

1. 문화적응 (Acculturation) ····· 11

2. 문화적응 스트레스 (Acculturative Stress) ····· 12

제4절 결혼 만족도 ····· 16

제5절 가족관계 정서친밀성 ····· 18

제6절 우울 ····· 20

제3장 연구의 설계 ····· 22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 22

1. 연구모형 ····· 22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가설의 설정 ····· 23
제2절 조사개요 및 변수의 측정 ····· 29
1. 조사개요 ····· 29
2. 변수의 측정 ····· 29

제4장 연구결과 ····· 33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33
제2절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 37
제3절 변수의 상관관계 검증 ····· 40
제4절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의 차이분석 ····· 42
제5절 가설검증 ····· 44
1. 문화 · 심리적거리, 문화적응성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44
2.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족관계 정서친밀성, 결혼 만족도,
우울에 미치는 영향 ····· 45
3.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47
4. 구조방정식모형 ····· 48
5. 매개효과 검증 ····· 51
6. 분석결과요약 ····· 61

제5장 결 론 ····· 63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63
제2절 연구 시사점과 한계점 ····· 65

참고문헌 ····· 68
설문지 ····· 8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 차

<표 1>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 7
<표 2> 다문화의 연령별 혼인 건수 비중 ····· 8
<표 3> 문화적응 전략 ····· 12
<표4-1> 조사대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 34
<표4-2> 조사대상자의 지리적 특성 ····· 35
<표4-3> 조사대상자의 결혼의 특성 ····· 36
<표 5>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표 ····· 38
<표 6> 변수의 상관관계분석 ····· 40
<표 7> 배경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의 차이 ····· 43
<표 8>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표 ····· 44
<표 9>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표 ····· 45
<표 10> 문화적응 스트레스, 결혼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표 ····· 46
<표 11>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표 ····· 47
<표 12> 가족관계 정서친밀성, 우울, 결혼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표 ····· 47
<표 13> 연구모형의 모형적합도 지수 ····· 49
<표 14> SEM모형의 연구 가설 검증 ····· 51
<표 15-1>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에 대한 경로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 52
<표 15-2> 우울에 대한 경로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 54
<표 15-3> 결혼만족도에 대한 경로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 56
<표 16>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의 매개효과 ····· 57
<표 17> 우울의 매개효과 ····· 59
<표 18> 연구결과표 ····· 6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 22
<그림 2> SEM 모형 ····· 50
<그림 3> 매개모형 ····· 52
<그림 4>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에 대한 경로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 53
<그림 5> 우울에 대한 경로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 55
<그림 6> 결혼만족도에 대한 경로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 56
<그림 7>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의 매개효과 검증 ····· 57
<그림 8>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 59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The Effects of Cultural·Psychological Factors on Acculturative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in the Multicultural Family

By Vo Thi Phuong Huyen
Advisor : Prof. Jung, Hyung-Shik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research was aimed at the marital satisfaction of women who have immigrated to Korea for marriage.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cultural and psychological factors of married immigrant women such as perceived cultural distance, cultural adaptation and depression on their acculturative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in Korea.

In order to make it more clearly, this study conducted the questionnaire surveys for 206 foreign married immigrant women living in Korea. The surveys was done from April 15, 2015 to May 13, 2015, by mail, online survey or in person survey at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by Korean, Vietnamese, Chinese, and English. The most subjects are Vietnamese women who are living in Kwangju, South Korea. For analysis method and the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efficients of correlation,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SEM were conducted using SPSS 20.0 and AMOS 20.0 analysis program.

Summarization of research results through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it was found that the average value of marital satisfaction is 3.8(±.8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out of 5 and mean value of acculturative stress is 2.7(±.93) out of 5. The high rate of marital satisfaction was found in Japanese women(M=4.2±.66) with high level education and who got married not through Marriage brokers. The high rate of acculturative stress was found in foreign women who have low level education, low level of Korean and through Marriage brokers.

Secondly, it can be seen that relating to the effect of cultural adaptation on the acculturative stress of married immigrant women, acculturative stress became lower as cultural adaptation was higher. However perceived cultural distance did not predict acculturative stress.

Next, it is mentioned about the terms of the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family emotional intimacy, depression and marital satisfaction. Analysis result demonstrated that acculturative stress of married immigrant women was more severe while family emotional intimacy and marital satisfaction were weaker, depression was higher.

Besides, family emotional intimacy had a positive effect on marital satisfaction. Analysis result showed that family emotional intimacy was higher as marital satisfaction was higher.

Moreover, depression had a negative effect on marital satisfaction. Depression was more severe while marital satisfaction was weaker.

Finally, the report showed the partial mediation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between adaptation and family emotional intimacy, between adaptation and depression, between adapt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It also found the partial mediation effect of family emotional intimacy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partial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Key words: Multicultural family, marital satisfaction, acculturative stress, perceived cultural distance, adaptation, family emotional intimacy, depress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연구배경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고용시장의 불안전성, 여성의 사회적 진출 확대, 맏벌이 부부의 선호 등의 요인으로 혼인연령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농어촌 지방에서 홍인을 기피하는 여성이 증가하면서 해당 지역의 남상들은 경혼하기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의 여성과 홍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한국통계청을 살펴보면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국제결혼 건수는 1만 8천 건으로 그 중 한국남성과 중국여성의 결혼의 건수가 33,1%를 차지하였고 베트남여성과의 결혼건수가 31,5%로 정체 국제결혼의 64.6%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외국인 배우자와의 국제결혼은 제한된 교제기간,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부부간의 갈등, 가족 갈등, 문화적 갈등 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는 국제결혼에서 폭력 사건, 자살, 이혼 등, 또는 스트레스, 우울, 불안을 겪게 되는 결혼 이주여성들에 관한 문제 등이 있다.

현제 국제결혼에 관한 정책 특히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결혼에 대한 정책은 강화해지고 있기 때문에 2010년부터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국제결혼 건수가 감소추세중이고 결혼 이주여성의 기준이 높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다.

최근 한류 드라마와 뮤지션들을 중심으로 한 한류문화의 확산을 계기로 외국여성들은 한국에 대한 동경을 가지게 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으로의 유학과 취업 국제결혼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다. 이들은 외국 문화에 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직면하기도 하는데, 외국 유학생들은 어느 정도로 주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문화에 접촉해도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받기도(Berry, 1997a; Eustace, Rosemary William, 2007)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주류문화에 깊게 접근함으로 인해 스트레스, 우울을 걸릴 수도 있다.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국제결혼은 여러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결혼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은 해당 업체의 열악한 정보력과 자금력, 마케팅 능력 등이 매우 다양하며, 역량이 부족한 업체를 이용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는다거나 정보를 제공하여도 결혼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에 대한 이해와 정보에 재한 접근성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여성은 결혼한 후에 한국에 이주할 때 단순한 부부 및 가족 간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음식, 제사 등 가족문화 및 인간관계 등의 한국문화와 가지고 있는 모국 문화가 많은 차이를 비교하면서 문화·심리적 거리를 길게 지각할 수 있다. 또한 이주결혼 외국여성들은 주로 20대 초반의 연령층이 많고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채 한국으로 오기 때문에 사회 적응성과 언어, 문화적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문화적응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 특히 베트남 이주여성들이 쉽게 스트레스에 걸릴 수 있다. Hovey and Magana(2002a)는 문화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를 말하며, 스트레스원에 의한 결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의미하기도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정의하였다.

Berry(2005)는 문화적응을 문화적응과정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인종, 문화적 집단원들이 장기간의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변화의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결혼 이주여성들은 문화적응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축적되어 만성적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노출 된다(김인철, 2008). 문화적응 과정에서 향수병, 좋지 않은 부부관계, 사회적 지원을 받기가 어려움 등 그 일로 인해 더욱 심각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에서의 높은 자살률이나 이혼율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다.

또한 Choi et al.(2009), Tran et al.(2007)는 이민자의 정신건강 문제 중에 가장 일반적인 증세가 우울이다. 또는 부부관계에서 남성보다 여성은 더 쉽게 걸릴 것 같다. WHO 2003에 따라 여성의 우울증은 신경정신 질환의 약 41,9%를 차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고 남성은 29,3%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결혼이민여성은 혼자 모국에서 떠나고 낯선 가족의 단원이 되면서 낯선 언어, 다른 습관생활을 경험하는 것이다. Larzarus and Folkman(1984)은 이민자들이 겪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주생활에서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일전기간의 총체적 스트레스하고 하였다.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되어 혼자 해결할 수 없고, 슬픔, 외로울 때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서, 여러 스트레스를 겪게 될 때 남편, 시부모 가강 가까운 사람에게 불만, 두려움을 나타나거나 자신한테 분노, 자책 등으로 인해 우울에 결릴 수도 있고 결혼 만족에 좋지 않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Kim et al.(2013) 한국에 결혼 이주여성들의 우울증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낮은 수준의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높은 수준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만족도는 결혼생활에 대해 얼마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자신이 지각하는 것이다. 만족이란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충족 대 불충족, 행복 대 불행, 유쾌 대 불쾌의 현상으로, 결혼만족은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을 말한다(Burr et al., 1979). 결혼 이주여성의 결혼만족요인은 부부간의 연령 차이, 결혼 기간, 소득, 한국어 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문화적응과 같은 심리적 요인, 사회적 지지 등 여려 요소들이 있음에도 분구하고 가족관계의 요인과 정신적 건강 및 우울증이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결혼여성이 혼자 모국을 떠나고 모르는 곳에 이주할 때는 이때 결혼 이주여성은 남편과 남편의 가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혼생활의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먼저 부부간의 관계부터 만족을 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부모와 시댁 구성원간의 관계도 만족을 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가족관계란 가족구성원의 상호간 인간관계를 의미한다(유영주, 1994). 가족구성원은 가족감정이란 특별한 애정으로 결합되어 있거나, 가족구성원 간 상호의 연대적 책임이 강하며 전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양옥경, 2001).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겪은 결혼 이주여성들은 남편과 시댁구성원들에게서 배려와 존중은 받으면 낯선 가족이지만 외롭지 않고 친밀한 느낌을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적 차이와 스트레스를 덜 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끼고 시간이 지나면서 애정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어소통은 어느 정도 개발해도 태도, 행동을 통해 의사소통을 얻을 수도 있고 사랑, 행복, 기쁨 심리적으로 결혼의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양옥경(2006)에 의해 결혼 이주여성의 출신국에 따라 응답자의 가족관계 차이를 분석해보면 베트남여성의 경우가 5점 척도에서 3,8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났다. 응답자 자신이 인지하는 가족관계가 좋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관계를 살펴보고, 그중에 가족 간의 정서적 친밀성, 의사소통의 개방성, 상호 협력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정주연, 2008).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갖고 있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나 결혼 만족도, 우울 등에 관한 국내 연구들을 많이 하였지만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 문화 심리적 거리와 문화적응성에 관한 연구를 아직 미흡한 실정하고, 또한 이런 스트레스, 우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어느 정도 있지만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처로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아직도 미흡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적응성 및 대처의 연구함은 필요한 것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연구목적

분 연구는 한국에 거주한 결혼 이주여성들의 문화적 및 심리적 요소들이(문화·심리적 거리 요소, 문화적응성 요소, 가족관계 정서친밀성 요소, 우울 요소)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면서 연구결과를 통해 결혼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들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나 결혼만족을 시킬 수 있는 제안들을 제공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이혜경·전혜인, 2013; 현경자·김연수, 2012)에 조점을 두고 있으며 일부 스트레스 경험 및 대처와 적응에 대한 연구가 매우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관계의 정서친밀성 및 심리적 변수들을 도입하여 결혼만족도와 관련성을 연구하고자한다.

첫째, 문화적 측면에서 문화·심리적 거리 및 문화적응성이 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다.

둘째, 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족관계 정서친밀성, 우울 및 결혼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다.

그 다음은 가족관계 정서친밀성 및 우울감이 결혼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문화·심리적거리 및 문화적응성과 가족관계 정서친밀성, 우울, 결혼만족도 간의 각각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간에 가족관계 정서친밀성 및 우울이 각각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상기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 및 연구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심리적 거리 및 문화적응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족관계 정서친밀성 및 우울과 결혼 만족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 및 가설 검증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측정 도구를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0, AMOS 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Cronbach's α를 통해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 ANOVA 등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통계분석 결과 근거로 구성된 가설을 검증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요약과 시사점 및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총 5장을 구성하였다. 그 구성 내용을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및 구성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 및 현황, 연구주제와 관한 요인들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조사개요 및 변수의 측정하였다.

4장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측정문항의 신뢰도, 타당도 및 상관관계를 검증한 후 통계분석을 통하여 설정한 가설을 검증한다.

5장에서는 연구결과 제시하여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제한점을 도출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국제결혼 이주여성 현황

한국의 통계청<표1>에 따르면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국제결혼 건수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수 추세였으며 2013년에 한국의 국제결혼 중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 건수는 총 1만 8307건이며 전년보다 11,3%로 감소하였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6,058건 (33,1%), 베트남 5770건 (31,5%) 순으로 총 65%를 차지하였고 필리핀 9,2%와 일본 6,7%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1>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단위: 건, %)

	한국男+외국女	중 국	베 트 남	필 리 핀	일 본
2010년	26,274	9,623	9,623	1,906	1,193
2011년	22,265	7,549	7,636	2,072	1,124
2012년	20,637	7,036	6,586	2,216	1,309
2013년	18,307	6,058	5,770	1,692	1,218
구성비	100	33.1	31.5	9.2	6.7
전년대비 증감률	-11.3	-13.9	-12.4	-23.6	-7

(2013년 혼인 · 이혼 통계 - 통계청)

거주 지역별로 2013년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혼인 구성비는 경기(23,9%), 서울(17,6%), 경남(6,0%)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2>에 따라서 2013년 다문화가정통계에서 결혼 연령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국제 결혼한 한국 남자 경우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비중은 8,6%와 17,8% 순으로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30대 후반(23,4%)과 45세 이상(25,4%)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여성들의 경우가 20대 후반(26,0%)과 30대 초반(15,4%)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24세 이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비중은 24,4% 감수 추세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부부연령 차이에 대한 남자가 10세 이상 연상인 부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2011년 48,0%) 41,7%로 지속적인 감소하고 있으며 동갑과 여성 연상 부부의 비중은 증가 추세한다고 한다.

<표 2> 다문화의 연령별 혼인 건수 비중 (단위: %)

		한국 남성			외국 여성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계*	100	100	100	100	100	100
혼인 연령	19세 이하	0.0	0.1	0.1	12.5	11.9	10.3
	20~24세	1.1	1.2	1.3	27.1	25.5	24.4
	25~29세	7.8	8.1	8.6	23.2	23.7	26.0
	30~34세	15.4	16.3	17.8	13.1	14.3	15.4
	35~39세	26.5	24.8	23.4	8.5	8.2	8.1
	40~44세	23.4	23.1	23.4	6.7	6.7	6.9
	45세 이상	25.6	26.4	25.4	8.7	9.8	9.1

* 연령미상 제외

2013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에 유입 방법은 주요 네 가지의 경로가 있다. 첫째 아는 사람의 소개하는 방법이다. 중국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고, 둘째 직접 만나는 방법이다. 중국 사람과 몽골 사람들은 한국남자를 직접 만나서 결혼한 경우가 많았다. 셋째는 종교단체를 통해 만나는 방식이고 주로 일본 사람, 필리핀 사람들, 최근에는 독립국가연합 출신의 여성들이 이러한 방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하는 방식은 주로 베트남 사람, 몽골 사람들의 경우에 많이 이루어진다고 한다(설동훈, 200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절 문화・심리적 거리 및 문화적응성

1. 문화・심리적 거리

Demes and Geeraert(2014)에 따르면 문화적 거리(Cultural Distance)는 두 나라의 문화의 차이점이라고 한다. 문화적 거리는 국가 간에 문화 간 적응도와 불편한 정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를 증명하여 차이가 클수록 문화 적응이 어려워짐을 예측하고 있다(Dunbar, 1994; Geeraert et al., 2013; Searle and Ward, 1990; Ward et al., 2001; Ward and Kennedy, 1999)

심리적 거리는 '심리적(Psychic)'과 '거리(Distance)'의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서(Evans et al., 2000) 여기서 '심리적'은 그리스어로 마음, 정신이라는 뜻이 있다(Simpson and Weiner, 1989). 그러므로 심리적 거리는 개개인의 마음・정신에서 비롯되는 거리로서 거리 지각에 대한 개개인의 마음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Sousa and Bradley, 2006).

심리적 거리는 자국과 외국 사이에서 경험하게 되는 개인적인 지각 차이인데(Sousa and Bradley, 2006) 이러한 지각 차이는 개인적 차원이지만 개인이 속해있는 조직과 국가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심리적 거리는 문화적 거리와 함께 복합적으로 연구되었다(Sousa and Bradley, 2006; Clark and Pugh, 2001; Evans and Mavondo, 2002).

2. 문화적응성

Searle and Ward(1990)에 따르면 문화적응(Adaptation)을 심리적 적응(Psychological Adaptation)과 사회문화적 적응(Sociocultural Adaptation)으로 구분하였다.

Ward et al.(2001)에 의하면 심리적 적응은 주로 심리적 안녕, 정신적 건강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연관된다, 즉 개인적 문화정체성, 정신건강에 좋은 것, 새로운 문화 환경에서 개인적인 만족감을 성취하는 것 등 정서적 감정적 측면의 적응 갖은 내적 결과를 의미한다(최운선, 2007).

사회문화적 적응은 새로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문화학습의 행동적, 인지적 요소들로 구성된다(Ward et al., 2001). 또한 Ward(1999)는 사회문화적 적응에 있어서 문화 학습적 접근에 의해 문화기술의 습득, 변화를 시도하는 행동차원의 적응, 이문화간 상호작용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즉, 사회문화 적응은 사회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 자신의 다양한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일상의 일을 관리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 등 객관적이고 행동적인 측면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외적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결혼 이주자에 대한 연구결과는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은 기간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회적 어려움의 수준이 낮아진다(Torbiorn, 1982; Armes and Ward, 1989; Ward and Kennedy, 1993). 따라서 이주 초기에 사회문화적 적응 어려움이 가장 높은 수준이 나타내면, 시간이 지날수록 급속한 속도로 떨어진다. 이것은 사회문화적 기술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습득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최운선, 2007).

이와 같이 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과정은 개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며, 적절한 사회적 지지가 있을 때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결혼 이주여성들이 개인의 정체성 혼란과 발생되는 어려움에 대해 대처능력이 떨어져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된다(Lazarus and Folkman, 198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3절 문화적응 스트레스

1. 문화적응 (Acculturation)

문화적응(acculturation)에 대한 개념은 사회학자 Redfield, Linton and Herkovits(1936)이 처음 정의되었다. 문화적응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이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로 일어나는 변화라고 정의하였다. 즉,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완전히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두 문화가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접촉 관계에 들어갈 때 그 결과로 어느 한쪽 또는 양쪽 성원들의 문화에 변화과정을 의미한다. 구차순(2007)의 연구에서 문화적응은 둘 혹은 그 이상의 문화 집단과 그 속의 개인구성원이 접촉하면서 그 결과로 생긴 문화적, 심리적 변화의 이원적인 과정이라고 하였다.

Oberg(1960)의 연구는 문화적응 과정에서 4단계를 나눠졌다. 첫 단계는 밀월(Honeymoon)단계이다. 새로운 문화와의 접촉하면서 황홀, 감탄, 열정을 느끼는 단계로 새로운 문화에서 알게 되는 사람들, 음식, 경치 등 모든 것을 즐기는 단계이며; 두 번째 단계는 문화충격(Culture Shock)이다. 이 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에 압도당하고, 방향감 조절 및 어려움을 느끼는 단계이다. 또한 분노, 적개심, 좌절, 불행, 향수병 및 육체적 질병을 겪게 되기도 한다. 세 번째 회복단계는 위기상황을 해결하고 문화를 배워나가는 시기이며, 마지막 단계는 적응단계로서 새로운 환경을 즐기고 기능적으로 유능해지는 단계이다.

Berry(1997a)는 이민자들이 새로운 문화를 어떻게 적응하는 지를 의미로 문화적응의 전략을 두 가지 차원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두 가지 차원은 자신의 모국의 문화적 가치와 특성을 유지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와, 새롭게 주류사회와 관계를 유치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네 가지 유형을 분류로 통합(integration)은 자신의 모국 문화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동화(assimilation)는 자신의 모국의 문화적 특성을 유지하지 않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분리(separation)는 자신의 모국문화를 유지하고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고, 주변화(marginalization)는 모국문화를 유지하지도 못하면서 새로운 문화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림으로 설명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문화적응 전략

		문화적 정체감과 특성을 유지할 것인가?	
		그렇다	아니다
주류 사회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그렇다	통합 (Integration)	동화 (Assimilation)
	아니다	분리 (Sepataration)	주변화 (Marginalization)

Krishnan and Berry(1992)의 연구에서 위에 네 가지 문회접근 전략 중에 이민자들이 통합(Intergration)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주민들이 대부분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감이 새로운 사회에서도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문화적응 과정의 변화는 접촉하는 두 집단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는 두 가지 유형을 나타난다. 문화적응에 영향을 주는 지역사회 특정에 따른 모국문화 유지수준에 관한 행동변화(behavioral shifts)이다. 또는 사회변화에 따른 소동과 관련이 있으며, 문제가 되는 이상한 행동적 반응을 포함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이다(Berry and Kim, 1987).

2. 문화적응 스트레스 (Acculturative stress)

Berry(1997a)는 문화적 정체감의 혼란과 문화적응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문화적응 스트레스라고 하며, 이는 본국이 아닌 주류국가에서의 차별, 언어부족, 사회·재정적 자원의 부족, 실직과 저임금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좌절, 주류사회에 소속되지 않은 감정, 고립, 소외감 등을 포함한다(Berry, 1997a; 김오남, 2007).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Hovey and Magana(2000a)는 문화적응 과정에서 스트레스원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스트레스 원으로는 차별, 언어적 어려움, 사회적, 재정적 자원의 부족, 외로움 등이 있다고 하였다.

Oberg(1960)는 외국에 거주하는 체류자들이 새로운 문화 환경에 진입하면서 보이는 심리적인 반응을 '문화충격(cultural shock)'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가 문화충격으로 묘사한 것은 다음을 포함한다. 첫째, 긴장으로서 필요한 심리적 적응을 하기 위한 노력이다. 둘째, 새로운 문화의 구성원들에게 거부를 당하는 것이다. 셋째, 문화차이를 알고 난 후의 역할 혼동, 역할기대, 가치에 대한 혐오, 불안, 분노를 느끼는 것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주자들의 적응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고. 결혼 이주여성들은 문화적응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축적되어 만성적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노출된다(김인철, 2008)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음과 같다(Berry and Kim, 1988)

첫째, 이주한 나라(host nation)의 특성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로서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된 태도를 갖지 못한 지배집단 내에 적응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라 하였다. 즉 다문화적 경향의 국가에서 겪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단일문화를 따르도록 하는 국가에서 겪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분명 정도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둘째, 문화적응 집단의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적응집단은 이민자, 난민, 원주민, 민족, 일시체류자로 구분한다. 문화적응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이주한 이민자와 모국의 정치적 사정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주한 난민이 문화적응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차이가 날 수 있다. 또한 체류자(sojourner)는 자발적으로 새로운 문화에 들어간 자들로 단기간 머무르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특별한 목표가 있고 새로운 사회로 이주해 갖게 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이주민들의 태도에 의해 통합, 동화, 분리, 그리고 주변화에 따라 문화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적응 스트레스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중에서 통합은 다른 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지배집단의 사회에서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통합으로 나타났으며 상호간에 성공적인 문화적응을 위하여 통합이 필요하다.

넷째, 이주한 개인이 가지는 특정으로 인구학적 특정, 사회적, 심리적 특성이 포함된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이다. 이주민이 거주하는 국가의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다를 수 있다.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보건복지부 실태조사결과(2005)에서 결혼 이주여성들의 사회적 자원 동원력은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보고하였다. 홍미기(2009)는 사회적 지지가 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양옥경 · 송민경 · 임세와(2009)는 결혼 이주여성은 다른 문화에서 새로운 행동과 사고가 요구되어진고 하였다. 성장의 배경을 갖고 있는 이주여성들이 다른 사회의 문화적 변화 및 가족문화의 변화의 상황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즉, 결혼 이주여성들이 단순히 지역적인 이동이 아니라 가족문화의 차이로 개별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정착하게 된 지역의 특성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새로운 사회를 접촉하게 될 때 문화와 관련된 사회적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문화에 대한 지식 정도, 언어와 커뮤니케이션 유능성, 친구관계 형성능력에 따른 차이, 문화적 정체감, 이전의 외국경험, 문화 간의 훈련 등 다양한 부분이 있다(정진경 · 양계민, 2004). 새로운 사회의 문화적응 과정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주류사회의 가치와 모습, 사회적 기준, 고유문화의 전통적인 가치와 습관, 새로운 기준의 영향으로 혼란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익숙한 환경과 자신의 지지체계를 잃게 됨으로 상실감을 경험하며, 불안이아 우울, 소외감, 식욕상실, 높은 신체화 증상, 정체감 혼란과 주변화 같은 행동을 나타낸다(Hovey and Magana, 2002a; Berry, 1988; 이소래, 1997).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 이주여성에게 삶의 만족이나 우울증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한 한국남자와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결혼 이주여성은 새로운 가족의 문화적응 과정에서 부부관계, 시부모와 관계의 갈등과 많이 겪게 되기도 하고 가족구성원에게서 준중과 지원을 받기 때문에 잘 적응하는 경우가 있기고 한다. 가족문화의 요소에서 문화적응에 영향요인은 가부장의식, 가사역할, 자녀양육, 다문화교육태도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문화에는 가족구조 안에서 가족구성원의 행동, 태도, 상호작용과 신념 등의 인간관계의 형식으로 가족 구성원들 간에 친밀감, 의사소통, 위계의 수준, 갈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관계 즉 남편과 시부모 및 시댁식구와의 관계와 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는 결혼 이주여성이 가족관계에서 긍정적일 경우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박연희, 2012).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4절 결혼 만족도

결혼 만족도(Marital Satisfaction)는 주로 결혼적응, 결혼행복도, 결혼성공도, 결혼의 안정성 등과 같이 다양한 한 개념으로 연구되었다(Lewis and Spanier, 1979).

Lewis and Spainer(1979)는 결혼만족을 역할 갈등, 안정성, 커뮤니케이션, 통합, 적응 등의 모든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로 보고 있다. Beach et al.(2003)에 따르면 결혼 만족도는 결혼적응, 결혼안정성, 결혼의 질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Hawkins(1968)는 결혼만족은 현재 결혼생활의 모둔 측면을 고찰할 때 경험하는 행복, 만족, 즐거움이라는 주관적 감정이라고 정의하였다.

Rollins and Felman(1970)의 정의는 결혼 만족도를 결혼 생활에서 추구하는 목표나 욕구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를 경험하는 주관적 감정 또는 태도이며, 그 기준은 개인이 기대했던 것 또는 현재의 결혼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이롭고 만족스럽다고 고려되는 주관적인 상태라고 하였다.

Rice(1979)는 남편과 아내의개인적 욕구가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 충족되는 정도를 결혼 만족도라 정의하였으며, 이는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에 대해 갖는 기대와 상대방이 실제 보이는 수행과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Roach et al.(1981)은 자신이 개발한 Marital Satisfaction Scale (MSS)에서 결혼만족의 개념을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한 대해 얼마만큼 좋아하고 싫어하는가의 신호하는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국내의 결혼 만족도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유영주(1979), 정승혜(1987)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 만족도 은 개인이 결혼생활 전반에서 경험하는 즐거움, 만족, 행복감과 실제와 기대간의 일치에서 오는 개인의 관점 그리고 부부의 행복과 만족에 대한 주관적 감정이나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이유경(2011)은 결혼 만족도를 부부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결혼생활의 질과 만족정도로 정의한다. 경혼만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부부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교류는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친밀감을 느끼는 정서적인 과정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여가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성과 애정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부부 각자가 갖는 개인적 역할을 잘 유지해 나가야 한다. 결혼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경제적인 역할을 분담해 나가야 하고, 부부간에 응집성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결혼 만족도 구성요인들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결혼생활을 만족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혼생활의 만족을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적 요인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국내에서 결혼 만족도에 관한연구들은 초기에 주로 사회인구학적인 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지만 점점 가족의 심리적 태도나 부부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변인들을 분석하는 경향이며(조유리 · 검정신, 2000) 결혼만족의 개념적인 분석단위는 개인 수준의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결혼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농촌아내의 결혼 만족도가 7점 만족에 5,06점(강수정 · 최정혜, 2010)이며, 도시 주부의 결혼 만족도가 중간 값보다 높게 나타났고(최정혜, 2005, 2006) 한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 만족도는 5점 만족에 평균 3.81점(김은경, 2008)이나 3.90점(설동훈 · 이혜경 · 조성남, 2006)으로 나타났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5절 가족관계 정서친밀성

전통적으로 Lévi-Strauss(1969)에 따르면 가족을 결혼에 의해 출발하고, 부부와 자녀, 그리고 다른 근친자로 구성되었으며 법적 유대, 경제적 및 성적 의무와 권리, 존경 및 애정 등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감정을 공유하는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가족이 혈연, 결혼, 입양 등으로 관련된 둘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동일한 가구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한다.

현대적인 가족은 둘 이상의 사람들이 친숙한 한 가족이라고 여기고, 밀접한 감정적 유대와 '가정'이라는 생활공간, 생물학적·사회적·심리학적 요구의 충족에 필요한 역할과 과제를 공유하는 집단이라고(Hartman and Laird, 1983) 말하였다. 또한 Giddens(1992)에 따르면 가족은 정서와 물질적인 지지에 기반을 둔 둘 또는 이상의 사람들이 상호간에 기대를 갖고 그들의 삶의 유형과 관계없이 상호책임감, 친밀감과 계속적인 보호를 주고받는 구성체로 현대사회에서 정의되고 있다.

가족관계란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인간관계를 의미한다(양옥경, 200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관계는 남편과의 관계, 시부모와의 관계, 남편의 현제자매와의 관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관계는 가족 구성원간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이기도 한다. 따라서 가족관계는 가사분담이나 권리의무 관계 및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가족행동의 총체이며 상호작용의 과정이다(박연희, 2012). 그리고 유영주(1984)에 따르면 가족관계란 가족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가족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Schaefer and Olson(1981)에 의하면 친밀성은 매우 사적인 주제들을 서로 나누고, 사적인 경험들을 공유함으로 얻어지는 경험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친밀한 경험이 지속적으로 공유되어질 때 사람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양옥경(2001)의 연구에서 가족구성원은 가족감성이란 특별한 애정으로 결합되어 있거나, 가족구성원 간에 상호의 연대적 책임이 강하며, 전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가족관계 만족도란 가족 구성원이 상호작용을 통해 느끼는 전반적인 만족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수준(이수연, 1999)으로 정의된다.

가족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유지해야 한다. 첫째, 부부관계, 고부관계 모두 가족구성원 관계에서 행복도가 높고 서로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켜주는 것, 둘째, 가족구성원의 인격이 존중되고 인정받으며 안정감을 느끼는 것, 셋째,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며 함께 즐기는 것, 넷째, 가족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외부상황을 통제, 조정할 수 있으며 가족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가족의 사회성을 고무하는 것, 다섯째, 가족관계 차원에서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 기능적이고 원만한 것, 여섯째,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개별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가족원간의 관계가 친밀하고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잦고 있는 것이다(최희진 · 우영주, 1999). 그리고 기족은 밀접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통해 서로 애정과 신뢰, 위안과 존경과 같은 심리적인 만족을 얻으면서, 그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행동양식의 준거가 되는 가치관이 영향을 받으며 형성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양옥경, 2001).

양옥경(2001)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관계의 요소를 세 가지의 주요 요수로 묶었다. 정서친밀관계, 인정책임관계, 그리고 수용존중관계가 있다. 가족 체계 내에서 가족 구성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가족 구성원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져 체계로서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상태와 과정으로서의 건강한 가족관계의 질적인 요소들로 가족관계의 요소가 정의된다.

가족관계 정서친밀관계를 중심으로 가족의 정서친밀관계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정서적 표현의 특성을 작용하는 것이다. 가족관계에서 정서적 표현은 다양한 범위에서 상황적 맥락과 자극에 맞는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정서적 반응의 정도가 적절해야 한다. 건강한 가족의 정서 표현은 긍정적 정서(Welfare Emotion) 친애, 따뜻함, 온화함, 지지, 사랑, 위안, 행복, 기쁨 등과 위기적 정서(Emergency Emotion) 분노, 두려움, 슬픔, 실망, 우울 등의 영역에서 모두 충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주전하였다(Epstein et al., 1993). 건강한 가족관계의 질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지지적인 가족 환경 내에서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정서적 교류에 참여하는 정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Collins et al., 1999)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6절 우울

우울 정의는 정상적인 기분변화로부터 병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연속선상에 있으며 근심, 침울감, 패감, 무가치감을 나타나는 기분장애로 정의할 수 있다(Battle, 1987).

Beck(1967)은 우울증 환자의 사고 내용이 주로 생활에서의 중대한 상실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다. 우울증 환자는 자신의 생활상의 행복이나 안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을 상실했다고 지각한다. 이러한 상실과 부정적인 기대는 슬픔, 실망, 무감동 같은 우울증과 관련된 전형적인 정서 상태들을 초래하여 의도적인 자기비난이 확대가 되면 우울증 등과 같은 병적인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하였다.

우울은 심리적으로 우울한 기분, 무가치한 느낌, 죄책감, 흥미의 상실, 집중·기억력의 감소, 자살에 대한 생각 등의 증상과 신체적으로는 식욕이나 몸무게의 변화, 수면의 변화, 피로 등을 수반하는 정신 병리이다(Beckham, Leber and Youll, 1995).

Weissman et al.(1987)의 연구에 따라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않은 여성들에게서 주요 우울증이 6개 월 이내에 나타날 발병률이 45,5%나 된다고 보고하였다. 여성의 우울증은 신경정신 질환의 약 41.9%를 차지하고 남성은 29.3%를 차지함에 따라(WHO, 2003) 우울은 여성의 가장 일반적인 정신건강 문제로 대두 되었으며 남성보다도 지속적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서울에 거주 결혼 이주여성들에 대해 양옥경·김연수(2007)의 연구결과에서 우울집단의 속에서 결혼 이주여성이 26,9%로 나타났다.

그리고 DSM-IV(1994)에 따르면 우울의 특징은 수면부족, 피곤, 식욕상실이나 과식, 무기력, 주의집중력·생산성·활동의 감소, 사회적 철회,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 죽음이나 자살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 우는 횟수가 잦아지는 것 등이 있다(DSM-IV: Diagnostic and Statistical Mental Disorder-IV).

본 연구에서는 결혼 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에 접근한 상화에서 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처 능력이 낮은 사람이나 가족, 사회에서 지지를 못 받는 사람들은 우울을 겪을 수 있다.

Berry(1997a)에 의하면 결혼 이주여성의 우울은 이주로 인한 특별한 대상의 상실, 사회적 지지 등과 같은 중요한 관계를 잃어버림으로 인해 더욱 더 고립감이나 슬픔, 후회의 감정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Hovey and King(1996)은 결혼 이주여성들의 우울 및 불안수준이 매우 높으며 문화적응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서 심각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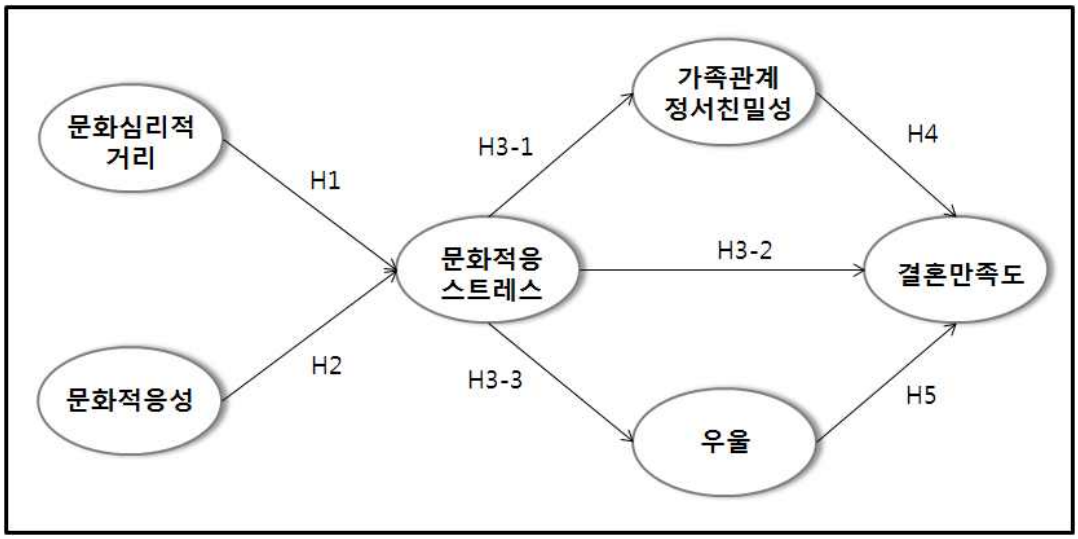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3 장 연구의 설계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심리적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그림 1> 연구모형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가설 설정

1) 문화·심리적 거리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Irina Suanet and Fons J. R van de Vijver(2009)는 러시아에서 유학생의 문화적 거리를 지각과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문화적 거리의 지각이 향수병과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체류자에 대한 다른 연구결과에서 문화적 거리의 지각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근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biker et al., 1980; Furnham and Bochener, 1982; Mumford and Babiker, 1998).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 1 : 결혼 이주여성의 이주국가에 대한 문화·심리적 거리가 클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높아질 것이다.

2) 문화적응성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 (Cultural Adaptation) 과정에서 이민자가 여러 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을 경험하게 된다(Kiang, et al., 2010). 문화적응성, 문화적 거리의 지각과 문화적응 오리엔테이션의 척도에 대한 Demes and Geeraert(2014)의 연구에서 높은 문화적응성 (사회·문화적 적응성, 심리적 적응성)은 낮은 인지된 스트레스, 낮은 불안감과 높은 생활만족에 유의미 영향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 2 : 결혼 이주여성의 이주국가에 대한 문화적응성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낮아질 것이다.

3)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족관계 정서친밀성, 결혼 만족도, 우울에 미치는 영향

터키-영국인 부부를 대상으로 Baltas and Steptoe(2000)의 연구에 따르면 문화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적 차이의 경험은 부부갈등을 일으키고, 이러한 갈등이 부부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라틴-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가족갈등, 심리적 디스트레스, 문화적 갈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Cuellar et al., 1995; Flores et al., 2004).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높을수록 부부갈등, 가족 갈등을 일으키고 좋지 않은 부부관계- 가족관계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국내 연구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높아지는 것으로(김경옥, 2010) 나타났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부부의 친밀감을 유지를 어렵게 하여 가정폭력으로 이어져 심각한 부적응 시에는 이혼을 고려하게 된다(노하나, 2007; 이소래, 1997). 부부관계를 비롯한 가족관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 3-1 : 결혼 이주여성의 이주국가에 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족관계 친밀성은 낮아질 것이다.

Negy and Snyder(1997)는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갖게 되는 미국-메시칸 이민여성들이 남편과 같이 지내는 시간, 또는 성생활의 불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에 대한(Chu et al., 2008; Yun, 2001)연구에서, 심리적 변인과 관련하여 우울, 스트레스, 등이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Kim(2007)는 서울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 이주여성의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으며 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결혼 행복감이 감소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숙・안숙희(2011)는 결혼 이주여성의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문화적응 변인의 영향력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즉,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결혼 이주여성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결혼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진옥・조인주(2012)는 결혼 이주여성은 새로운 환경, 관습, 다른 언어 등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차별감, 문화충격, 새로운 생활에 대한 적응상의 어려움 등으로 좌절과 불안을 경험하게 되며, 이로 인해 결혼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혜경・전혜인(2013); 박용순・송진영・이순자(2012)의 결혼 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이민여성의 결혼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검증하였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낮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 3-2 : 결혼 이주여성의 이주국가에 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는 낮아질 것이다.

Alderete et al.(2000)이 미국의 멕시코계 이주 농업 노동자들의 우울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이주민들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원에 계속 노출될 경우 심각한 정신건강상태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문화적응 과정에서의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개인의 문제 대처 능력을 넘어설 때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심각한 정신건강 상의 문제가 초래되며 이주로 인해 개인이 느끼는 흔한 정신건강 상의 문제가 우울이라는 것이다(Keyes, 2000; 이소래, 1997).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낮은 정신건강(우울, 불안), 고립감, 소외감과 주변화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과 같은 스트레스와 행동을 유발한다고 보았다(Berry, 1997b). 이주로 인하여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적절히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수준과 자살 충동을 높일 수 있으며(Hovey and King, 1996)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불안, 우울 ,음주 문제, 식이 장애 등 심리적 증상에 개인에 따라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Gil et al., 2000; Hovey and Magana, 2002b; Perez et al., 2002).

Le Sage and Townsend(2004)미국에 거주하는 멕시코 이민커플 173명을 대상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연관성을 연구한 연구조사에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은 연령, 학력수준, 경제수준, 가족관계, 낮은 임금 등으로 보고되었고, 이들이 주류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주류사회와 상호작용을 통한 적응유형에 따라 각 이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인지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정도와 이민 집단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지지 등이 멕시코 이민커플 우울 증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주로 인하여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적절히 해결괴지 않았을 때 우울이나 불안감과 같은 정신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수준과 자살 충동을 높일 수 있다(Hovey and King, 1996). 이에 따라 다음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 3-3 : 결혼 이주여성의 이주국가에 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감은 높아질 것이다.

4) 가족관계 친밀성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Hawkins and Johnsen(1969)은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 그리고 즐거움 등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결혼만족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부부관계를 비롯한 가족관계의 애정, 친밀한 인간관계, 경제적 안정, 자녀의 출산과 순조로운 성장, 그리고 사회적인 성공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결혼만족은 결혼생활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친밀한 가족관계가 부부에게 긴장을 완화해주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Cottrell, 1990). Brock and Lawrence(2008)는 남편의 지지가 부인의 결혼만족에 관한 만성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고 밝혔다. 베트남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정주연(2008)의 연구에서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결혼만족을 비롯한 삶의 만족시킬 수 있다. Berry and Williams(1987)의 연구결과 결혼 만족도와 삶의 만족은 설명하는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다음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H 4 : 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관계 친밀성이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5) 우울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결혼생활과 우울이 깊은 상관을 맺고 있음은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밝혔다. 그리고 결혼생활 불만족과 우울의 인과관계는 분명히 하기가 어렵다, 즉, 많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결혼생활에서 불화와 우울증이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가지면서, 배우자의 우울감이 결혼 불만족의 원인인지 아니면 결혼 불만족이 우울증을 나타내는 것인지를 증명하였다. O'leary et al.(1994)의 지역 사회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기혼여성들은 결혼 불화와 우울 증상 간 상관이 r=.35 부터 r=.40정도를 보였으며 기혼남성들은 r=.32 부터 r=.47 정도로 보였다. Merikangas(1984)에 따르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에 걸친 종당연구에서 우울증 환자들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2년 내의 집단은 일반 집단보다 이혼율이 8배나 높을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우울증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들의 절반은 결혼생활에서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고(Rounsaville et al., 1979), Weissman et al.(1987)은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은 여성들에게서 주요 우울증이 6개월 이내에 나타날 유병률이 45,5%나 된다고 보고하였고, 이는 결혼관계에 만족하는 사람들보다 25배나 높은 확률을 나타났다.

Fincham et al.(1997)에 의하면 초기 기혼 남성들의 경우는 우우증상들이 낮은 결혼 만족도를 야기하면서 여성들 경우는 낮은 결혼 만족도가 높은 우울 정도를 나타났다. Brown and Harris(1978)는 기혼여성들이 생활에서 어떤 스트레스 사전에 겪었을 때 남편 혹은 연인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가 우울해질 가능성이 높음을 주전하였다. 그리고 우울을 경험하는 부인과 그의 남편은 우울을 겪지 않은 부부에 비해 결혼생활에 대해 더 불만족스럽게 느낀다고 보고 하였다(Gotlib and Whiffen, 1989).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처럼 결혼생활만족도와 우울이 서로 강한 상관관계에 의하면 본 연구가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5 : 결혼 이주여성의 우울감이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는 낮아질 것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절 조사개요 및 변수의 측정

1. 조사개요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심리적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내·외 문헌자료를 기초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한국(주로 전라남도광주와 서울)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대부분 결혼 이주한 베트남여성)으로 2015년 4월 15일부터 5월 13일까지 약 1개월 정도 이루어졌으며, 설문지는 베트남어 142부, 한국어 38부, 중국어 27부, 영어 23부 총 230부를 제작 배포하여 다문화센터와 외국인지원센터, 외국인 교회 직접 방문 및 올라인, 메일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총 230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지 26부를 제외한 206부를 최종분성에 사용하였다. 이 중에 베트남 이주여성의 조사 자료는 135부이였으며; 일본, 캄포디아, 등 이주여성의 한국어 자료는 32부이였고; 중국 이주여성의 조사 자료는 24부이였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이주여성의 조사 자료는 15부이였다.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IBM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20.0과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우선 변수의 구성을 위한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변수들의 상광관계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설정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인과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가설검증 및 매개효과검증을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모형을 수행하였다.

2. 변수의 측정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문화·심리적 거리

문화·심리적 거리는 Demes and Geeraert(2014)의 지각한 문화적 거리의 개요 BPCDS (Brief Perceived Cultural Distance Scale)척도를 이용하여 이를 국제결혼 상황에 맞게 수정하였다. 즉 결혼 이민지들이 결혼하기 전 생활했던 국가(현지국)와 현재 생활하고 있는 한국과 날씨, 의사소통, 생활 습관, 대중교통, 음식문화, 가족생활,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측정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1점 '매우 다르다'부터 5점 '매우 비슷하다'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낮을수록 문화·심리거리가 큰 거리를 의미한다.

2) 문화적응성

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Demes and Geeraert(2014)의 사회·문화적 적응 척도 BSAS (Brief Sociocultural Adaptation Scale)를 사용한다. 사회·문화적 적응 척도에 대해 "귀하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생활하는데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의 7가지 항목 (날씨, 의사소통, 생활 습관, 대중교통, 음식문화, 가족생활, 사람의 태도]으로 수정하였다. 측정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1점 '전혀 적응하지 못함'부터 5점 '매우 잘 적응함'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성가 높음을 의미한다.

3) 문화적응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Hovey and King(1996)의 사회적, 태도적, 가족적, 환경적 문화적응 스트레스 SAFE (Social, Attitudinal, Familial, and Environmental Acculturative Stress)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맺기 위해 이 척도를 8문항으로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고향을 떠나 낯선 이국땅에서 생활하는 나 자신이 슬프다'; '우리 한국가족은 우리 베트남사람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치를 모르다.’;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려면 긴장된다.’; ‘한국 사람들은 나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한국문화에 적응하기가 힘들다.’ 등으로 측정하고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그저 그렇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로 평가한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4) 가족관계 정서친밀성

가족관계 친밀성은 양옥경(2001)의 개발한 ‘가족관계척도’를 사용하여 가족관계척도의 하위영역 중 ‘가족관계 정서친밀영역’의 11가지 문항으로 활용하였다. ‘우리가족은 가족끼리 대화가 잘 된다’, ‘우리가족은 각자의 감정에 대해 가족들에게 마음을 열고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한다’, ‘우리가족은 각자의 친한 친구들을 서로 알고 있다’, ‘우리가족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등과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그저 그렇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점수 높을수록 가족구성원 간의 친밀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5)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가 개발한 우울척도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al Depression Scale)척도를 기준으로 수용하여 ‘이주일 동안 아래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자주 나타납니까?’ 14가지 항목으로 수정하였다. ‘일상적인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내 일생은 실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등과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전혀 느끼지 못함’ 1점; ‘아주 가끔’ 2점; ‘가끔 느낌’ 3점; ‘종종 느낌’ 4점; ‘항상 느낌’ 5점으로 구성하였다. 점수의 범위가 최저 14점에서 70점까지 가능하며 점수가 높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함을 나타났다.

6) 결혼 만족도

기준에 개발된 결혼 만족도에 대한 척도의 문항수가 많아서 결혼 이주여성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 본 논문은 임춘희(2013)의 측정한 문항을 결혼자체에 대한 만족, 배우자에 대한 호감과 만족에 대한 의미로 수용하였다. 문항들은 '나는 현재 결혼생활에 만족한다.', '나는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 '나와 남편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한다.' 등의 7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그저 그렇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로 평가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4 장 연구결과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남편연령, 학력, 남편 학력, 직업, 남편 직업, 한국어 능력, 종교, 소득, 남편 소득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표 4-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20대가 113명(54,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0대가 75명(36.4%)이었으며 40대 이상이 18명(8.8%)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20대와 30대가 91.3%로 거의 다수를 차지하였다. 한편, 남편의 연령은 40대가 108명(5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0대가 62명(30.1%)이었으며, 50대 이상이 27면(13.1%)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남편 연령은 30대와 40대가 82.5%로 다수를 이루었다.

대상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들 졸업이 79명(38.3%)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졸업 및 재학이 48명(23.3%), 중졸 이하가 47명(22.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편의 학력은 대졸 및 재학이 88명(42.7%)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이 59명(28.6%), 전문대졸이 42명(20.4%)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전업주부가 94명(45.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노무직(농업, 등)이 46명(22.3%), 판매 및 서비스직이 25명(12.1%), 사무직 및 공무원이 14명(6.8%)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다수(67.9%)가 전업주부와 단순노무직이다. 반면, 남편의 직업은 판매 및 서비스직이 58명(28.2%), 관리직, 전문가 및 사업이 50명(24.3%), 단순노무직이 48명(23.3%), 사무직 및 공무원이 36명(17.5%)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소득은 “110만원 마만”이 11명(53.4%)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이 40명(19.4%),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34명(16.5%)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편의 소득은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68명(33%)과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68명(33%)으로 대다수를 차자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4-1> 조사대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	범주	명(%)	변인	범주	명(%)
본인 연령	20~29 세	113(54.9)	남편 연령	20~29 세	9(4.4)
	30~39 세	75(36.4)		30~39 세	62(30.1)
	40세 이상	18(8.8)		40~49세	108(52.4)
				50세 이상	27(13.1)
본인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7(22.8)	남편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1.0)
	고등학교 졸업	79(38.3)		고등학교 졸업	59(28.6)
	전문대학교 졸업	21(10.2)		전문대학교 졸업	42(20.4)
	대학교 재학 및 졸업	48(23.3)		대학교 재학 및 졸업	88(42.7)
	대학원 이상	11(5.3)		대학원 이상	15(7.3)
본인 직업	단순노무직(농업)	46(22.3)	남편 직업	단순노무직(농업)	48(23.3)
	판매, 서비스직	25(12.1)		판매, 서비스직	58(28.2)
	사무직, 공무원	14(6.8)		사무직, 공무원	36(17.5)
	관리직, 전문가, 사업	5(2.4)		관리직, 전문가, 사업	50(24.3)
	전업주부	94(45.6)		전업주부	1(0.5)
	기타	22(10.7)		기타	13(6.3)
본인 소득	100만 미만	110(53.4)	남편 소득	100만 미만	3(1.5)
	100만 이상~150만 미만	40(19.4)		100만 이상~150만 미만	19(9.2)
	150만 이상~200만 미만	34(16.5)		150만 이상~200만 미만	68(33.0)
	200만 이상~300만 미만	15(7.3)		200만 이상~300만 미만	68(33.0)
	300만 이상	7(3.4)		300만 이상	48(23.3)
한국어 수준	거의 이해하지 못함	4(1.9)	종교	불교	49(23.8)
	간단한 단어를 구사	32(15.5)		가톨릭	38(18.4)
	생활에 필요한 짧은 대화 가능	68(33.0)		기독교	10(4.9)
	생활에 불편함 없이 말할 수 있는 정도	86(41.7)		종교 없음	96(46.6)
	전혀 불편함 없이 말할 수 있는 정도	16(7.8)		기타	13(6.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대상자의 한국어 수준은 “생활에 불편함 없이 말할 수 있는 정도”가 86명(41.7%)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에 필요한 짧은 대화가 가능한 정도”가 68명(33.0%), “간단한 단어를 말하는 정도”가 32명(15.5%)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없음이 96명(46.6%)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교가 49명(23.8%), 가톨릭이 38명(18.4%)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지리적 특성을 보면 <표4-2>와 같다. 응답자의 출신국가를 보면 베트남이 135명(65.5%)으로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을 조사하였다. 다음에는 중국이 24명(11.7%), 일본이 19명(9.2%)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거주 지역을 보면, 광주광역시에서 응답자가 106명(51.5%)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였으며, 이어 서울이 61명(29.6%)과 다른 지역이 39명(18.9%)이었다.

<표4-2> 조사대상자의 지리적 특성

변인	범주	명(%)	변인	범주	명(%)
출신 국가	베트남	135(65.5)	현재 거주 지역	광주광역시	106(51.5)
	중국	24(11.7)		서울특별시	61(29.6)
	일본	19(9.2)		기타	39(18.9)
	필리핀	11(5.3)			
	기타	17(8.3			

<표 4-3>에 따라 결혼과정을 살펴보면 “친구, 친척 등의 소개”가 82명(39.8%)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76명(36.9%), 기타 (회사나 학교에서 만나서 연애 후 결혼, 등)이 35명(17%)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의 대부분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음이 150명(72.8%)으로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가족 형태는 부부와 자녀의 형태가 111명(53.9%)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부 형태가 60명(29.2%), 부부, 자녀와 시댁가족의 형태가 17명(8.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거의 과반수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형태이다. 자녀현황은 “1명”이 77명(37.4%), 자녀가 없는 가정이 77명(37.4%), “2명”이 42명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4%)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은 “1년~3년 미만”이 60명(29.1%)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3년~5년 미만”이 48명(23.3%), “5년~8년 미만”이 40명(19.4%) 순으로 나타났다.

표<4-3> 조사대상자의 결혼의 특성

변인	범주	명(%)	변인	범주	명(%)
결혼 경로	친구, 친척 등의 소개	82(39.8)	가족 형태	부부	60(29.2)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76(36.9)		부부, 자녀	111(53.9)
	종교기관을 통하여	13(6.3)		부부, 시댁가족	17(8.3)
	기타	35(17)		부부, 자녀, 시댁가족	17(8.3)
한국 국적 취득	취득했음	56(27.2)		기타	1(0.5)
	취득하지 않음	150(72.8)	결혼 기간	1년 미만	27(13.1)
자녀 수	없다	77(37.4)		1년~3년 미만	60(29.1)
	1명	77(37.4)		3년~5년 미만	48(23.3)
	2명	42(20.4)		5년~8년 미만	40(19.4)
	3명 이상	10(4.9)		8년 이상	31(15.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절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신뢰성이란 측정문항 간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말하며 측정변수의 진정한 값을 측정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들에 관한 정확성이나 정밀성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하나의 개념에 대해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에 사용하는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알파계수의 값이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신뢰성이 낮은 항목을 제거하여 알파계수의 향상으로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다음으로, 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사용하였다. 타당성이란 측정을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특히, 요인의 수를 최소화하여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방식을 이용하였고, 회전방식은 직각회전인 베리맥스(varimax)방식을 사용하였다. 요인의 수 결정은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만을 선택 하였으며,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관하였음을 나타내주는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는 그 값이 0.5 이상인 경우를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또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요인적재량이 0.5 이하인 항목을 제거하였다. Kaise-Mayer-Olkin(KMO)은 변수 쌍들 간에 상관하였는가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어지는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 척도의 값이 작으면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 선정이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보통 KMO값이 0.9이상이면 아주 좋은 것이고 0.5이하이면 변수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 문화·심리적 요인들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각각의 측정항목들의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에 이용 가능한지를 측정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5>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표

측정 문항	측정내용	요인 적재 값	고요 값	분산%	누적%	Cronbach's α
문화 심리적 거리	날씨 및 기후조건	.786	2.995	7.68	7.68	.819
	의사소통	.836				
	생활 습관 및 풍습	.680				
	음식문화(조리법, 식사예절, 식사 시간 등)	.813				
문화 적응성	날씨 및 기후조건	.681	3.739	9.59	17.27	.894
	의사소통	.653				
	생활 습관 및 풍습	.766				
	대중교통 및 문화시설 이용 (극장, 쇼핑)	.710				
	음식문화 (조리법, 식사예절, 식사 시간 등)	.703				
	가족관계 (가족 구성원 간에 친밀한 정도)	.599				
문화 적응 스트레스	고향을 떠나 낯선 이국땅에서 생활하는 나 자신이 슬프다.	.778	4.553	11.67	28.94	.898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려면 긴장된다.	.781				
	가족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안타깝다.	.685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가 힘들다.	.701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를 괴롭힌다.	.775				
	나는 고향의 부모와 친척들을 남겨두고 떠나온 것이 후회스럽다.	.668				
가족 관계 정서 친밀성	각자의 감정을 가족들에게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	.698	6.072	15.57	44.51	.936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710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좋아한다.	.657				
	서로 친밀하게 느낀다.	.701				
	서로 솔직하고 정직하다.	.754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 해준다.	.808				
	서로에게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676				
	문제를 함께 잘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776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719				
우울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670	4.614	11.83	56.34	.913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67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714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703				
	슬픔을 느꼈다.	.691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737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657				
결혼 만족도	나는 현재 결혼생활에 만족한다.	.676	5.157	13.22	69.56	.948
	남편은 나를 많이 좋아한다.	.745				
	나는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	.764				
	남편과의 성생활에 만족한다.	.730				
	나와 남편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한다.	.792				
	결혼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742				
	남편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743				

KMO = .928, x^2 = 6424.469, p<.00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연구모형에서 사용된 구성개념들의 전제적인 하위차원을 밝히고 항목 간의 신뢰도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를 <표 5> 살펴보면, 먼저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결과 χ^2 =6424.469, (p<.000)이므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 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적합도의 결과 값이 .928로 나타났으며, 공통성 등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측정자료의 요인분석 가정을 만족시키고 있다. 신뢰도를 검증 결과는 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심리적 거리 (α=.819), 문화적응성 (α=.894), 문화적응 스트레스 (α=.898), 우울 (α=.913), 가족관계 정서친밀성 (α=.936), 결혼 만족도 (α=.948) 총 6개의 차원으로 추출되었고 전체 분산의 69.56%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요인의 신뢰성은 모두 0.5 이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3절 변수의 상관관계 검증

Pearson 상관관계(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는 두 변수가 각각 간격척도 혹은 비율척도로 측정된 경우의 상관관계의 크기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변수들이 정규분표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적용하는 상관계수이다. 상관관계 값의 범위는 -1부터 +1까지이다. 계수의 부호는 관계의 방향을 가리키고 절대 값은 관계의 강도를 나타낸다.

결혼 이주여성의 문화 및 심리적 요인들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이용하였다. 상과분석에 사용된 결혼 이주여성의 결혼 만족도,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심리적 거리, 문화적응성, 가족관계 정서친밀성, 우울을 포함 시켰다.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변수의 상관관계분석

	1	2	3	4	5
1. 결혼 만족도	-				
2. 문화적응 스트레스	-.492***	-			
3. 문화·심리적 거리	.131	-.189**	-		
4. 문화적응성	.505***	-.609***	.366***	-	
5. 가족관계 정서친밀성	.706***	-.486***	.130	.490***	-
6. 우울	-.648***	.569***	-.249***	-.591***	-.586***

*p 〈.05,**p 〈.01,***p 〈.001

결과를 살펴보면 결혼 이주여성의 결혼 만족도은 문화적응 스트레스(r=-.492, p<.001), 문화적응성(r=.505, p<.001), 가족관계 정서친밀성(r=.706, p<.001), 우울(r=-.648, p<.001)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났다. 즉 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문화적응성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결과를 살펴보면 문화·심리적 거리(r=-.189, p<.01), 문화적응성(r=-.609, p<.001), 가족관계 정서친밀성(r=-.486, p<.001), 우울(r=.569, p<.001)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났다. 즉 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심리적 거리 점수가 낮음, 즉 문화·심리의 큰 거리를 느낄수록, 문화적응성 낮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이 낮을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4절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의 차이분석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을 인구사회학적 요소(출신국, 연령, 학력, 소득, 한국어 능력), 결혼 경로 요소, 가족 형태 요소의 관점에서 이들 각각의 요소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소를 분석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F=2.297, p>.05)'에서 네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결혼만족도(F=5.075, p<.01)'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일본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다른 나라의 여성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학력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F=4.636, p<.05)'및 '결혼만족도(F=10.546, p<.01)'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학력은 대학 이상의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만족도가 높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F=12.520, p<.001)'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혼만족도(F=3.356, p>.05)'에서 네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한국어를 잘 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어 잘 못한 여성에 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 결혼 경로를 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F=22.729, p<.001)'및 '결혼만족도(F=43.051, p<.001)'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만족도가 낮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연령, 소득, 가족형태 및 결혼기간에 따른 차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p<.05).

제5절 가설검증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7> 배경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의 차이

			문화적응 스트레스 M (SD)	결혼만족도 M (SD)
Total			2.7(.934)	3.8(.854)
출신국	베트남	Ⓐ	2.8 (.941)	3.7 (.846)
	중국	Ⓑ	2.9 (.802)	3.4 (.932)
	일본	Ⓒ	2.3(.780)	4.2(.662)
	기타	Ⓓ	2.5(1.02)	4.1(.751)
	F/t (p)		2.297	5.075**
	다중비교		ns.	Ⓑ<Ⓐ<Ⓓ<Ⓒ
연령	30세 미만	Ⓐ	2.7 (.889)	3.7 (.853)
	30세 이상	Ⓑ	2.7 (.990)	3.8 (.852)
	F/t (p)		.237	1.612
	다중비교		ns.	ns.
학력	고중졸 이하	Ⓐ	2.8 (.935)	3.6 (.872)
	대학 이상	Ⓑ	2.5 (.912)	4.0 (.772)
	F/t (p)		4.636*	10.546**
	다중비교		Ⓐ > Ⓑ	Ⓐ < Ⓑ
한국어 능력	기본적	Ⓐ	2.9 (.939)	3.7 (.882)
	유창함	Ⓑ	2.5 (.877)	3.9 (.814)
	F/t (p)		12.520***	3.356
	다중비교		Ⓐ > Ⓑ	ns.
소득	100만 마만	Ⓐ	2.7 (1.001)	3.8 (.825)
	100만 이상~150만 마만	Ⓑ	2.8 (.841)	3.6 (.879)
	150만 이상	Ⓒ	2.7 (.870)	3.9 (.895)
	F/T (p)		.289	.712
	다중비교		ns.	ns.
결혼경로	결혼중개업체	Ⓐ	3.1 (.859)	3.3 (.899)
	기타	Ⓑ	2.5 (.905)	4.1 (.698)
	F/t (p)		22.729***	43.051***
	다중비교		Ⓐ > Ⓑ	Ⓐ < Ⓑ
가족형태	부부	Ⓐ	2.6 (.791)	4.0 (.717)
	부부, 자녀	Ⓑ	2.8 (1.023)	3.7 (.883)
	기타	Ⓒ	2.9 (.832)	3.7 (.948)
	F/t (p)		1.959	2.084
	다중비교		ns.	ns.
결혼기간	1년 미만	Ⓐ	2.7 (.890)	3.89 (.840)
	1 ~ 3년	Ⓑ	2.8 (.918)	3.80 (.821)
	3 ~ 5년	Ⓒ	2.9 (.923)	3.84 (.859)
	5 ~ 8년	Ⓓ	2.5 (1.046)	3.83 (.900)
	8년 이상	Ⓔ	2.7 (.874)	3.67 (.900)
	F/t (p)		.897	.284
	다중비교		ns.	ns.

*p 〈.05, **p 〈.01, ***p 〈.00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문화·심리적거리, 문화적응성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결혼이민여성들의 문화·심리적거리, 문화적응성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문화·심리적거리'와 '문화적응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F= 60.066, p<.001). 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성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β=-.623,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7.2%를 확인할 수 있다.

<표 8>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표

	종속변수: 문화적응 스트레스				
	(b)	SD	st.β	t	p
문화·심리적거리	.043	.067	.039	.644	.520
문화적응성	-.680	.065	-.623	-10.420	.000
R^2 = .372 ΔR^2 = .366, F = 60.066***					

*p 〈.05,**p 〈.01,***p 〈.001

이러한 결과는 결혼 이주여성이 새로운 문화를 적응과정에서 문화적응성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새로운 문화를 적응하기 위하여 문화에 대해 학습하고 준비하여 문화적응성을 향상시키면 문화적응 과정에 스트레스를 낮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예측과 달리 문화·심리적 거리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2.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족관계 정서친밀성, 결혼 만족도, 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울에 미치는 영향

1)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에 미치는 영향

결혼 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하고,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에 대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F=63.046, p<.001).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β=-.486,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에서 23.6%로 확인할 수 있다.

<표 9>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표

	종속변수: 가족관계 정서친밀성				
	(b)	SD	st.β	t	p
문화적응 스트레스	-.385	.049	-.486	-7.940	.000
R^2=.236 ⊿R^2=.232, F=63.046***					

*p 〈.05,**p 〈.01,***p 〈.001

이러한 결과는 결혼 이주여성이 새로운 문화를 적응과정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문화즉응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가족관계에서 정서친밀성을 낮게 나타날 수 있다.

2)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결혼 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하고, 결혼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결혼 만족도에 대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F=65.030, p<.001).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결혼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β=-.492,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결혼 만족도에서 24.2%로 확인할 수 있다.

<표 10> 문화적응 스트레스, 결혼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표

	종속변수: 결혼 만족도				
	(b)	SD	st.β	t	p
문화적응 스트레스	-.449	.056	-.492	-8.064	.000
	R^2=.242	ΔR^2=.238,	F=65.030***		

*p 〈.05,**p 〈.01,***p 〈.001

이러한 결과는 결혼 이주여성이 새로운 문화를 적응과정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문화즉응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결혼 만족도를 낮게 나타날 수 있다.

3)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결혼 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하고, 우울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우울에 대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F=97.834, p<.001).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β=.569,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우울에서 32.4%로 확인할 수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1>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표

	종속변수: 우울				
	(b)	SD	st.β	t	p
문화적응 스트레스	.476	.048	.569	9.891	.000
	R^2=.324 ⊿R^2=.321, F=97.8334***				

*p 〈.05,**p 〈.01,***p 〈.001

이러한 결과는 결혼 이주여성이 새로운 문화를 적응과정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문화적응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우울을 겪은 가능성을 높게 나타날 수 있다.

3. 가족관계 정서친밀성과 우울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결혼 이주여성들의 가족관계 정서친밀성과 우울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정서친밀성과 우울을 독립변수로 하고, 결혼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결혼 만족도에 대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F=141.210, p<.001). 가족관계 정서친밀성과 우울은 무두 결혼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가족관계 정서친밀성 β=.497, p<.001; 우울 β=-.357,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우울에서 58.2%로 확인할 수 있다.

<표 12> 가족관계 정서친밀성, 우울, 결혼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표

	종속변수: 결혼 만족도				
	(b)	SD	st.β	t	p
가족관계 정서친밀성	.572	.065	.497	8.868	.000
우울	-.390	.061	-.357	-6.368	.000
	R^2=.582 ⊿R^2=.578, F=141.210***				

*p 〈.05,**p 〈.01,***p 〈.00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러한 결과는 결혼 이주여성이 새로운 가족에 생활과정에서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을수록 결혼 만족도에 높을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가족생활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많이 지지해 주고 배려해 주고, 또한 결혼이민여성들의 우울 증상 외로움 느낌, 슬픔 느낌, 등이 많이 없으면 결혼생활에서 결혼이 상당히 만족시킬 수 있다.

4. 구조방정식모형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SEM)은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CFA)과 경로분석(path analysis)이 결합된 형태이며,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및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기법으로서 개발하였다.

모형적합도를 검증은 연구의 데이터와 연구모형이 얼마나 잘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모형적합도 검증 지표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 Index)가 있다.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에는 χ2(Chi-square), GFI (Goodness of Fit Index), AGFI (Adjusted GFI),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가 있고,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에는 TLI (Turker-Lewis Index), NFI (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가 있으며,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 Index)에는 PNFI (Parsimonious Normed Fit Index), PGFI (Parsimonious Goodness of Fit Index),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심리적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구조반정식모형(SEM 모형)을 실시한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 =687(df=2.179, p<.001), p=.000, GFI=.719, AGFI=.684, CFI=.867, RMR=.088, RMSEA=.076, TLI=.858, NFL=.78로 나타났다. χ2과 RMSEA값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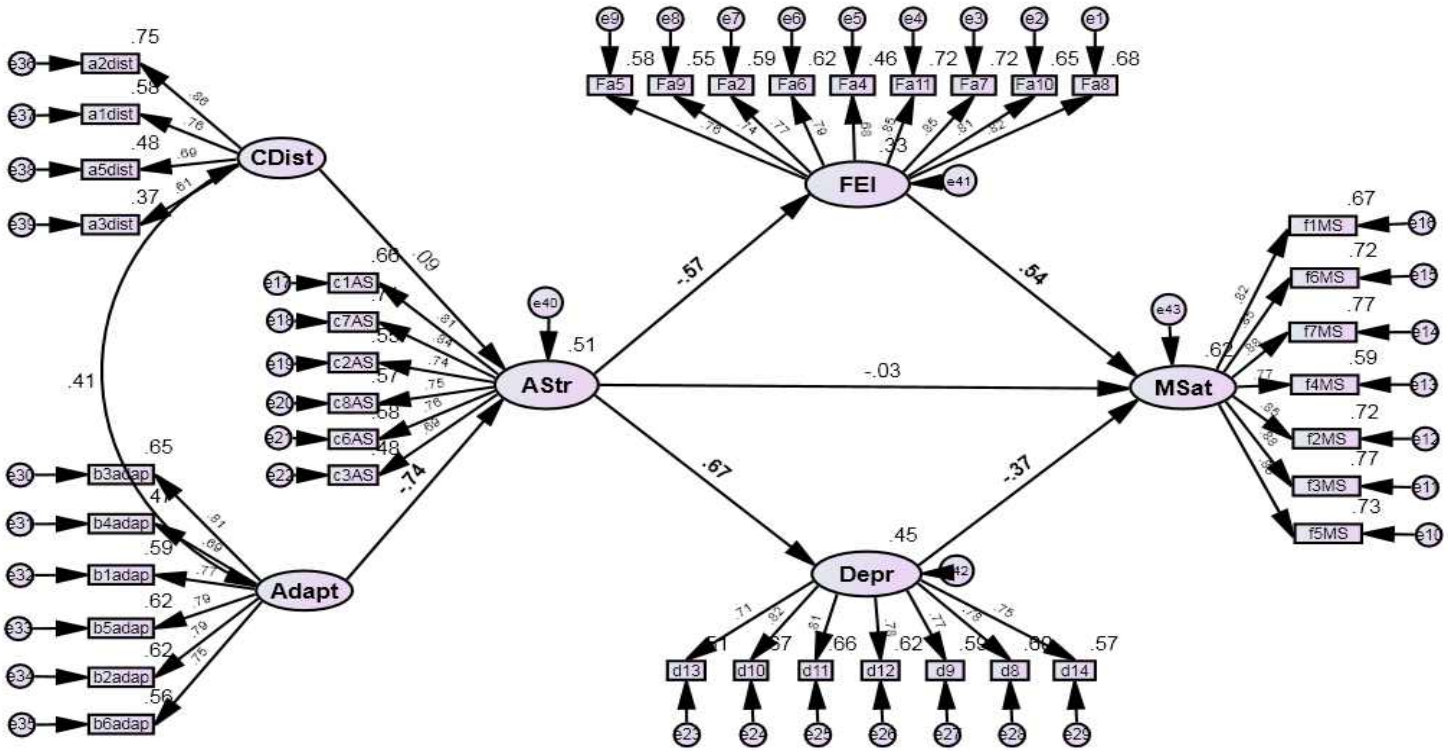
은 보통이지만 다른 값이 낮음을 나타났으며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 연구모형의 모형적합도 지수

모형적합도	해석기준	결과	판단
χ^2	P<.05	687 (P=.000)	양호
GFI	.9 이상	.719	낮음
AGFI	.9 이상	.684	낮음
CFI	.9 이상	.867	낮음
RMR	.5 이하면 양호	.088	낮음
RMSEA	.1 ~ .08 보통 .08 ~ .05 양호 .05 이하 좋음	.076	보통
TLI	.9 이상	.858	낮음
NFL	.9 이상	.78	낮음

SEM 모형으로 가설 검증하여<표 14>과 같다. 가설1, 가설2, 가설3-1, 가설3-3, 가설4, 가설5는 SPSS 회귀분석으로 검증의 결과와 같다. 가설1에서 문화·심리적 거리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H1=.093, p>.05), 문화적응성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예측하였다(H2=-.744, p<.001).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에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였으며(H31=-.432, p<.001),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H33=.445, p<.001). 그리고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이 결혼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예측하였으며(H4=.599, p<.001), 우울이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였다(H5=-.466, p<.001).

그러나 SEM모형에서 가설3-3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SEM 모형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 혹은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을 매개로 하여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관계 친밀성은 낮아지고 이러한 결과는 후속적으로 결혼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화적응



<그림 2> 연구의 SEM모형

CDist=문화.심리적거리; Adapt=문화적응성; AStr=문화적응 스트레스;
FEI=가족관계 정서친밀성; Depr=우울; MSat=결혼만족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스트레스가 높아짐에 따라 경혼이민여성의 우울을 높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14> SEM모형의 연구 가설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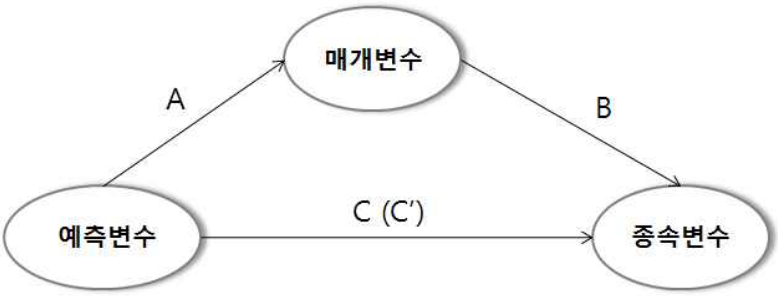
가설	Description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s
H1	문화·심리적거리 → 문화적응 스트레스	.102	.093
H2	문화적응성 → 문화적응 스트레스	-.878***	-.744
H3-1	문화적응 스트레스 → 가족관계 정서친밀성	-.432***	-.572
H3-2	문화적응 스트레스 → 결혼만족도	-.027	-.032
H3-3	문화적응 스트레스 → 우울	.445***	.670
H4	가족관계 정서친밀성 → 결혼만족도	.599***	.541
H5	우울 → 결혼만족도	-.466***	-.370

***p 〈.001

5. 매개효과 검증

연구에서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매개변수(mediator)를 이용해서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어떤 변인이 매개변인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단계를 만족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그림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예측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야 하며(경로A), 두 번째 단계로 매개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경로B), 세 번째 단계는 예측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야 하며(경로C), 네 번째 단계는 경로C에 매개변인을 추가할 때(경로C') 예측변인의 효과(β값)가 줄어들어야 한다. 이때 예측변인의 효과(β값)가 유의하지 않으면, 즉 0과 다르지 않으면 완전매개라고 하고, 예측변인의 효과(β값)가 유의하면, 즉 0보다 크다면 부분매개라고 한다(Baron & Kenny, 198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3> 매개모형

1) 문화·심리적거리 및 문화적응성에 대한 경로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증

문화·심리적거리 및 문화적응성이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15-1>와 같다.

<표 15-1>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에 대한 경로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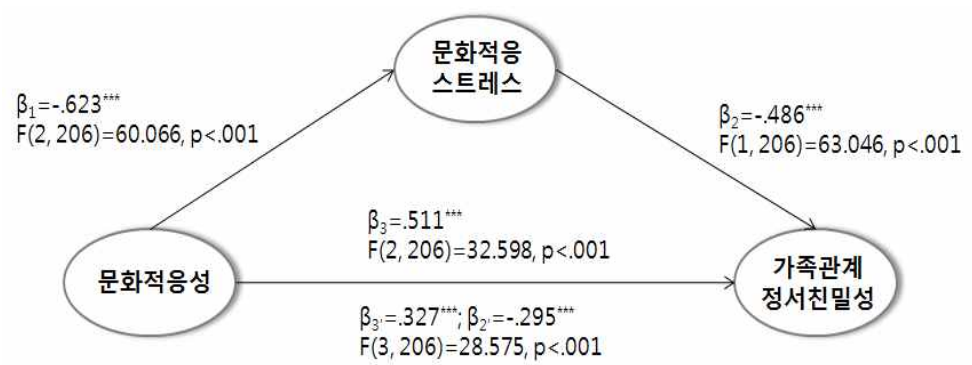
	설명변수	종속변수	(b)	SD	st.β	t
1단계 (경로A)	문화·심리적거리	→ 문화적응 스트레스	.043	.067	.039	.644
	문화적응성		-.680	.065	-.623	-10.420***
		R^2=.372 ⊿R^2=.366, F=60.066***				
2단계 (경로B)	문화적응 스트레스	→ 가족관계 정서친밀성	-.385	.049	-.486	-7.940***
		R^2=.236 ⊿R^2=.232, F=63.046***				
3단계 (경로C)	문화·심리적거리	→ 가족관계 정서친밀성	-.051	.058	-.057	-.873
	문화적응성		.442	.057	.511	7.791***
		R^2=.243 ⊿R^2=.236, F=32.598***				
4단계 (경로C')	문화·심리적거리	→ 가족관계 정서친밀성	-.041	.056	-.046	-.724
	문화적응성		.283	.068	.327	4.168***
	문화적응 스트레스	→ 가족관계 정서친밀성	-.234	.059	-.295	-3.973***
		R^2=.298 ⊿R^2=.288, F=28.575***				

*p 〈.05,**p 〈.01,***p 〈.001

분석결과, 1단계에서 본 연구의 가설1의 결과와 같아 문화·심리적거리가 문화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적응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문화적응성은 유의하게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예측하였다(β=-.623, p<.001),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7,2%로 확인할 수 있다. 즉 문화적응성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은 수준을 걸릴 수 있다. 2단계는 가설 3-1과 같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β=-.486, p<.001),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을 23,6%로 설명하였다.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문화적응성은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511, p<.001),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을 24,3%로 설명하였다. 즉 문화적응성은 높을수록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문화적응성 요소의 경우에는 첫째, 둘째, 셋째 조건이 충족되었다. 넷째 조건(경로 C')을 검증하기 위해 문화적응성,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독립변수로 하고,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의 설명력은 29,8%로 하였고,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에 대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F=28.575, p<.001).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하였으며(β=-295, p<.001), 문화적응성은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β=.327, p<.001)이 3단계에서 유의했던 문화적응성과 비해 β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문화적응성과 가족관계 정서친밀성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를 하는 것을 보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4>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에 대한 경로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문화·심리적거리 및 문화적응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15-2>와 같다.

<표 15-2> 우울에 대한 경로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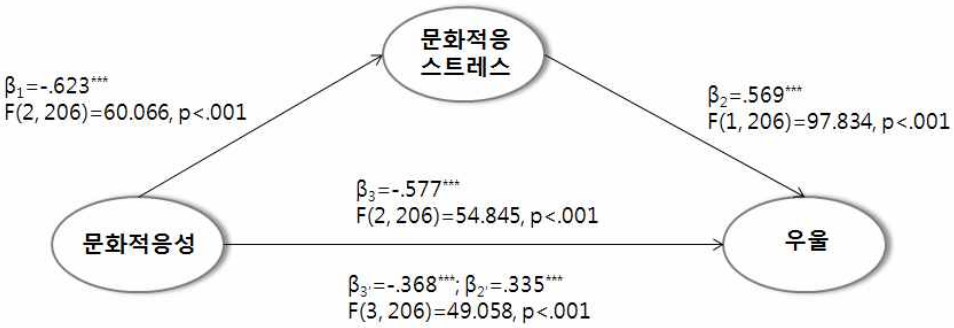
	설명변수	종속변수	(b)	SD	st.β	t
1단계 (경로A)	문화·심리적거리	→ 문화적응 스트레스	.043	.067	.039	.644
	문화적응성		-.680	.065	-.623	-10.420***
		R^2=.372 ⊿R^2=.366, F=60.066***				
2단계 (경로B)	문화적응 스트레스	→ 우울	.476	.048	.569	9.891***
		R^2=.324 ⊿R^2=.321, F=97.8334***				
3단계 (경로C)	문화·심리적거리	→ 우울	-.036	.057	-.038	-.629
	문화적응성		-.526	.055	-.577	-9.501***
		R^2=.351 ⊿R^2=.344, F=54.845***				
4단계 (경로C')	문화·심리적거리	→ 우울	-.048	.054	-.051	-.889
	문화적응성		-.336	.065	-.368	-5.171***
	문화적응 스트레스	→ 우울	.280	.056	.335	4.968***
		R^2=.421 ⊿R^2=.413, F=49.058***				

*p 〈.05,**p 〈.01,***p 〈.001

분석결과, 1단계에서 본 연구의 가설1의 결과와 같아 문화·심리적거리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문화적응성은 유의하게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예측하였다(β=-.623, p<.001),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7,2%로 확인할 수 있다. 2단계는 가설 3-3과 같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β=.569, p<.001), 우울을 32,4%로 설명하였다(R^2=.324). 3단계에서는 문화적응성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577, p<.001), 우울을 35,1%로 설명하였다(R^2=.351). 문화적응성 요소의 경우에는 첫째, 둘째, 셋째 조건이 충족되었다. 넷째 조건(경로 C')을 검증하기 위해 문화적응성,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독립변수로 하고, 우울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우울의 설명력은 42,1%로 하였고, 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울에 대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F=49.058, p<.001).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하였으며(β=.335, p<.001), 문화적응성은 우울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β=-.368, p<.001)이 3단계에서 유의했던 문화적응성과 비해 β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문화적응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를 하는 것을 보였다.



<그림 5> 우울에 대한 경로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문화·심리적거리 및 문화적응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15-3>와 같다.

분석결과, 1단계에서 본 연구의 가설1의 결과와 같아 문화·심리적거리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문화적응성은 유의하게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예측하였다(β=-.623, p<.001),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7,2%로 확인할 수 있다. 2단계는 가설 3-2와 같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β=-.492, p<.001), 결혼만족도를 24,2%로 설명하였다(R^2=.242). 3단계에서는 문화적응성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527, p<.001), 결혼만족도를 25,8%로 설명하였다(R^2=.258). 문화적응성 요소의 경우에는 첫째, 둘째, 셋째 조건이 충족되었다. 넷째 조건(경로 C')을 검증하기 위해 문화적응성,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독립변수로 하고,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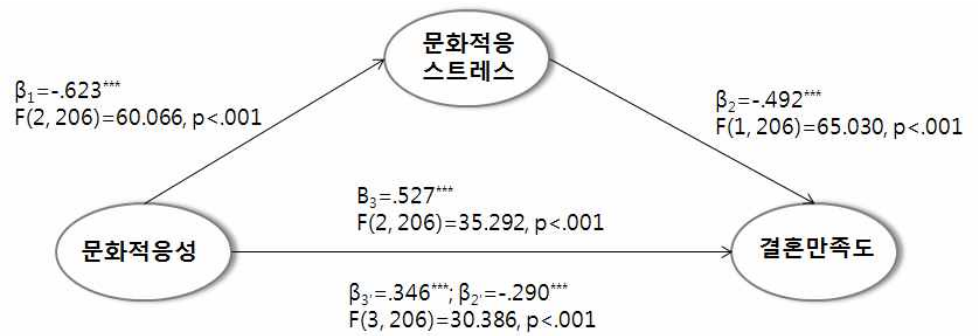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결혼만족도의 설명력은 31,1%로 하였고, 결혼만족도에 대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F=30.386, p<.001).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하였으며(β=-.290, p<.001), 문화적응성은 결혼만족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β=.346, p<.001)이 3단계에서 유의했던 문화적응성과 비해 β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문화적응성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를 하는 것을 보였다.

<표 15-3> 결혼만족도에 대한 경로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설명변수	종속변수	(b)	SD	st.β	t
1단계 (경로A)	문화·심리적거리	→ 문화적응 스트레스	.043	.067	.039	.644
	문화적응성		-.680	.065	-.623	-10.420***
		R^2=.372 ⊿R^2=.366, F=60.066***				
2단계 (경로B)	문화적응 스트레스	→ 결혼만족도	-.449	.056	-.492	-8.064
		R^2=.242 ⊿R^2=.238, F=65.030***				
3단계 (경로C)	문화·심리적거리	→ 결혼만족도	-.063	.066	-.061	-.943
	문화적응성		.526	.065	.527	8.115***
		R^2=.258 ⊿R^2=.251, F=35.292***				
4단계 (경로C')	문화·심리적거리	→ 결혼만족도	-.051	.064	-.050	-.797
	문화적응성		.345	.078	.346	4.455***
	문화적응 스트레스	→ 결혼만족도	-.265	.067	-.290	-3.940***
		R^2=.311 ⊿R^2=.301, F=30.386***				

*p 〈.05,**p 〈.01,***p 〈.001



<그림 6> 결혼만족도에 대한 경로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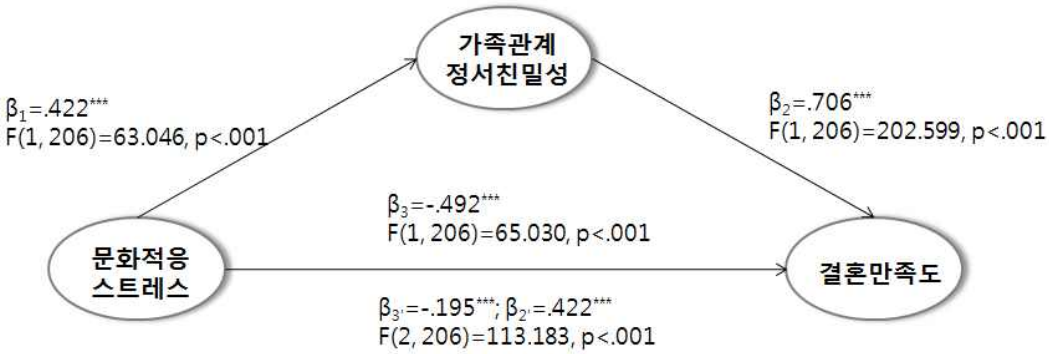
2)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의 매개효과 검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16>와 같다.

<표 16>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의 매개효과

	설명변수	종속변수	(b)	SD	st.β	t
1단계 (경로A)	문화적응 스트레스	→ 가족관계 정서친밀성	-.385	.049	-.486	-7.940***
		R^2=.236 ⊿R^2=.232, F=63.046***				
2단계 (경로B)	가족관계 정서친밀성	→ 결혼만족도	.813	.057	.706	14.234***
		R^2=.498 ⊿R^2=.496, F=202.599***				
3단계 (경로C)	문화적응 스트레스	→ 결혼만족도	-.449	.056	-.492	-8.064***
		R^2=.242 ⊿R^2=.238, F=65.030***				
4단계 (경로C')	문화적응 스트레스	→ 결혼만족도	-.178	.050	-.195	-3.525***
	가족관계 정서친밀성	→ 결혼만족도	.704	.064	.611	11.072***
		R^2=.527 ⊿R^2=.523, F=113.183***				

*p 〈.05,**p 〈.01,***p 〈.001



<그림 7>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의 매개효과 검증

분석결과, 1단계에서 가설 3-1의 결과와 같아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유의하게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을 예측하였다(β=-.486, p<.001),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에 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3,6%로 확인할 수 있다. 2단계는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β=.706, p<.001), 결혼만족도를 49,8%로 설명하였다. 3단계에서는 가설 3-2와 같아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492, p<.001), 결혼만족도를 24,3%로 설명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소는 첫째, 둘째, 셋째 조건이 충족되었다. 넷째 조건(경로 C')을 검증하기 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결혼만족도의 설명력은 52,7%로 하였고, 결혼만족도에 대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F=113.183, p<.001). 또한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은 결혼만족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하였으며(β=.611, p<.001),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β=-.195, p<.001)이 3단계에서 유의했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비해 β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를 하는 것을 보였다.

3)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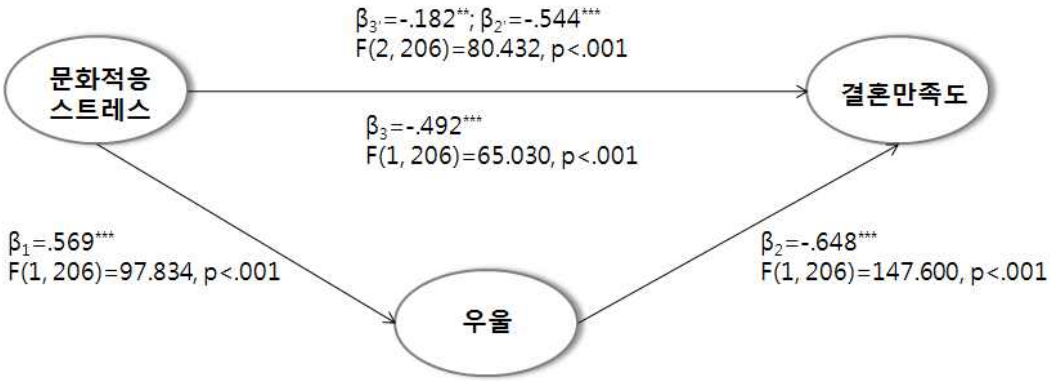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적 역할을 분석한 결과는 <표 17>와 같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7> 우울의 매개효과

	설명변수	종속변수	(b)	SD	st.β	t
1단계 (경로A)	문화적응 스트레스	→ 우울	.476	.048	.569	9.891***
		R^2=.324 ⊿R^2=.321, F=97.834***				
2단계 (경로B)	우울	→ 결혼만족도	-.709	.058	-.648	-12.149***
		R^2=.420 ⊿R^2=.417, F=147.600***				
3단계 (경로C)	문화적응 스트레스	→ 결혼만족도	-.449	.056	-.492	-8.064***
		R^2=.242 ⊿R^2=.238, F=65.030***				
4단계 (경로C')	문화적응 스트레스	→ 결혼만족도	-.166	.058	-.182	-2.849**
	우울	→ 결혼만족도	-.596	.070	-.544	-8.539***
		R^2=.442 ⊿R^2=.437, F=80.432***				

*p 〈.05,**p 〈.01,***p 〈.001



<그림 8>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분석결과, 1단계에서 본 연구의 가설 3-3의 결과와 같아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유의하게 우울을 예측하였다(β=.569, p<.001), 우울에 대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2,4%로 확인할 수 있다. 2단계는 우울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 (β=-.648, p<.001), 결혼만족도를 42,0%로 설명하였다. 3단계에서는 가설 3-2와 같아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β=.492, p<.001), 결혼만족도를 24,3%로 설명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소는 첫째, 둘째, 셋째 조건이 충족되었다. 넷째 조건(경로 C')을 검증하기 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을 독립변수로 하고,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결혼만족도의 설명력은 44,2%로 하였고, 결혼만족도에 대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F=80.432, p<.001). 또한 우울은 결혼만족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하였으며(β=-.544, p<.001),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β=-.182, p<.01)이 3단계에서 유의했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비해 β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를 하는 것을 보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6. 분석결과요약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 이용해서 결혼 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심리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 <표 18>와 같다.

<표 18> 연구결과표

가설	변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족관계 정서친밀성	우울	결혼 만족도
H 1	문화·심리적 거리	×			
H 2	문화적응성	○/(-)			
H 3-1	문화적응 스트레스		○/(-)		
H 3-3	문화적응 스트레스			○/(+)	
H 3-2	문화적응 스트레스				○/(-)
H 4	가족관계 정서친밀성				○/(+)
H 5	우울				○/(-)
○ 채택, × 기각 / (방향성(+), (-))					
매개 분석	문화·심리적 거리 → 문화적응 스트레스 → 가족관계 정서친밀성				×
	문화·심리적 거리 → 문화적응 스트레스 → 우울				×
	문화·심리적 거리 → 문화적응 스트레스 → 결혼만족도				×
	문화적응성 → 문화적응 스트레스 → 가족관계 정서친밀성				○/부분
	문화적응성 → 문화적응 스트레스 → 우울				○/부분
	문화적응성 → 문화적응 스트레스 → 결혼만족도				○/부분
	문화적응 스트레스 → 가족관계 정서친밀성 → 결혼만족도				○/부분
	문화적응 스트레스 → 우울 → 결혼만족도				○/부분

먼저, 이주여성의 문화·심리적 거리와 문화적응성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가설 1, 2 에 대해서는 문화적응선 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 전과 결혼 후에 각각 차이가 있는 것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을 볼 수 있는데, 이 문화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과 직접적인 체험에서 나오는 차이일 수 있다. 즉 미디어와 SNS의 확산으로 인해 결혼 전 문화 심리적 거리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고 또한 조사 표본 상당수가 아시아 지역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해당 국가와의 문화적, 심적 거리는 영향을 덜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결혼 이주여성이 결혼 후 겪게 되는 문화적응성은 결혼이주여성들이 결혼 후 직접적으로 겪게 되는 현상이므로 보다 현실적인 차이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족관계 정서친밀성, 결혼 만족도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갓ㄹ 3의 결과를 살펴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해 가족관계 친밀성과 결혼만족도에 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반면, 우울에 정(+)의 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 이주야성이 현지에서 겪게 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해 가족관계 친밀성이 저하되고, 결혼 만족도가 감소하며, 자신의 삶에 대해 우울감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문화적응 스트레스 이외에 가족관계 정서친밀성(가설 4)과 우울(가설5)에 대한 영향관계 역시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즉 가족 간의 대화와 믿음 소통과 같은 가족 간의 실질적인 지원이 만족도가 높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야기되는 결혼 이주여성의 우울감은 결혼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결혼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 모두가 신부에게 우울감을 줄일 수 있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 격려가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를 검증의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문화·심리적 거리와 가족관계 정서친밀성, 우울,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통계적 영향이 없었다. 한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문화적응성과 가족관계 정서친밀성, 우울, 결혼만족도 간의 각각 관계에서 부분매개를 볼 수 있었다.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간에 부분매개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우울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간에 부분매개를 확인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5 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분 연구는 한국에 거주한 결혼 이주여성들의 문화적 및 심리적 요소들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결혼 이주여성들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을 낮출 수 있는 정책과 결혼만족을 시킬 수 있는 제안들을 제공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5년 4월 15일 부터 5월 13일 까지 한국에 거주한 결혼이주 여성들을 2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내용은 결혼 이주여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성개념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성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자의 인구사회학적의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각각의 구성개념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변수들 간의 매개효과를 추가함으로 검증하였다.

조사자의 특성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의 차이의 분산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혼이주여성 조사자들은 한국문화를 적응과정에서 스트레스 5점이 2.7점을 보고하였고 결혼 만족도는 5점 만족에 평균 3.81(±.85)점을 조사하였으며 가장 만족한 이주여성은 일본여성(M=4.2±.66)이고 중국여성이 가장 낮은 만족점수를 평가하였다(M=3.4±.93). 베트남 여성들의 만족이 3.7(±.84)점을 조사하였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학력과 결혼경로에 따라 조사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학력이 높은 집단은 학력 낮은 집단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비해 무화적응 스트레스는 더 낮게 보고하였고 결혼만족도는 더 높게 나타났고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결혼한 이주여성들은 아는 사람한테 소개를 받거나 직접 만나서 결혼한 외국여성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더 높을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만족도는 더 낮게 보고되었다. 그리고 한국어를 유창한 집단은 문화적응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을 보고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심리적 거리 가설은 예측과 달리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 이유는 21C에 접어들면서 정보화와 세계화 시대에서 스마트폰과 SNS(Twitter, Facebook, Kakao Talk, Tango, 등)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간의 문화적 장벽과 차이를 극복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지칠 것으로 추축해 볼 수 있다.

둘째, 문화적응성 요소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같은 이유로 21C에 스마트폰과 SNS를 이용하여 결혼 이주여성들의 거주하는 국가에 대한 지식 및 기술(예를 들면 한국의 가부장에 대한 지식, 김치를 만드는 법, 한국어 복습, 등)을 준비하였으며, 문화적응성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다.

셋째. 겪게 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족관계 정서친밀성, 결혼 만족도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족관계 정서친밀성과 결혼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구조방정식 모형의 결과에 의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기각되었다. 따라서 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살펴본다.

넷째,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서,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이 높을수록 시집 구성원들에게서 관심과 도움이를 많이 받을수록 결혼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반대로 우울이 높을수록 대처 못된 경우에 결혼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문화·심리적 거리와 가족관계 정서친밀성, 우울,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통계적 영향이 없었다.

한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문화적응성과 가족관계 정서친밀성, 우울, 결혼만족도 간의 각각 관계에서 부분매개를 볼 수 있었다. 즉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성은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성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성은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났다.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간에 부분매개를 확인하였다. 즉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을 매개로 하여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우울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간에 부분매개를 확인하였다. 즉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우울을 매개로 하여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제2절 연구 시사점과 한계점

이상의 연구결과를 비추에 볼 때,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결혼과 같이 사람들이 낯설 나라에 거주할 때 불편한 점을 많이 생기게 되고 이를 극복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낮으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이러한 것들은 결혼 만족도와 우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기에서 대처 및 적응에 대한 변수들의 문화적응성과 가족관계 정서친밀성 요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소를 도입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문화적응성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볼 수 있었고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이 결혼 만족도에 준 영향을 기지고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성과 스트레스 간의 연구와 가족관계 친밀성과 삶의 만족 간에 각각 영향을 연구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같이 영향을 보고 결혼 만족도에 영향의 연구를 확장하여 연구하였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이 삶의 만족의 영향만 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확장하여 측정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가족관계 정서친밀성에 영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 결혼 이주여성들은 자기만 슬픔이나 외로움 감정을 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분위기, 부부의 친밀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이다.

셋째, 조사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학력, 월 소득, 한국어 능력, 결호경로, 가족형태 요소 등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 결혼 만족도과 어떠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정책은 점점 강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수가 많이 떨어지면서 국제 결혼한 외국여성과 한국남성의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있지만 본 연구의 표본의 차이 분석을 통해 아직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정책이 더 필요하거나 결혼중개업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이런 연구를 활용하여 한국남성, 외국여성 고객들의 만족을 시키기 위해 인구학적 조건(예를 들면 학력, 국가, 등)에 따라 외국여성을 소개하거나 고객의 결혼만족 시키기 위해 고객들에게 문화적응 및 국제결혼에 대한 프로그램을 시킬 수 있다.

또는 결혼이주영성의 결혼 만족시키기 위해 가족의 지지 요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국제결혼 당사자들에게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이 필요하며,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성을 향상시키는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 학습 프로그램들을 만들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국제 혼인 이미지를 높이고 확대할 수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보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으며, 요소 간에 각각 관계를 통계적인 관계를 확인하였고 회귀분석의 결과를 비교할 수가 있다. 이에 따라 매개효과를 검증을 통해 연구의 요소들 간의 경로에서 직접적 영향 및 간접적 영향을 검증할 수 있다.

그러나 분 연구는 다음 몇 가지 연구 한계점을 지니고 있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방향 제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이 많지 않았다. 연구는 사생활 문제를 설문함으로 인해 조사 거절한 사람도 있었으며, 표본의 국가별 측면을 보면 대부분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이었다. 따라서 표본 대상 중국, 필리핀 결혼 이주여성 대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제 외국여성들이 한국에 일하거나 유학중에 스스로 알아서 연애-결혼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기간 요소와 한국에 거주기간 요소가 다른 표본을 나눌 수 있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따라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결혼기간과 한국에서 거주기간 각각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 결혼 만족도과 차이를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사생활 문제를 연구함으로 인해 설문지법만을 사용하여 자기보식으로 평가가 이루러져서 보고자의 편파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설문지의 내용과 응답자의 반응태도에 따라 조사결과가 좌우되는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면접조사 방법을 같이 실시할 필요가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고문헌

[한국문헌]

강수정 · 최정혜(2010). “농촌생활개선회원들의 결혼 만족도와 가족건강성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2), 71-85.

구차순(2007). “결혼 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경옥(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오남(2007).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2(3), 44-73.

김인철(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김은경(2008). “중소도시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6), 83-93.

남인숙 · 안숙희(2011). “도시와 농촌 거주 결혼이민여성의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결혼 만족도 비교”.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7(2), 99-108.

노하나(2007). “중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문화적응 유형과 이주여성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연희(2012). “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요인연구: 가족관계스트레스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용순 · 송진영 · 이순자(2012). “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다문화와 평화,* 6(2), 88-110.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지원정책방안”.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최종보고서.

설동훈(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복지정책의 과제: 추신국가와 거주지역에 따른 상이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4(5), 109-133.

설동훈 ·이혜경 ·조성남(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양옥경(2001). “가족관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8, 119-147.

_____(2006). “다문화가족 지역정착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양옥경·김연수(2007). “서울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6, 79-110.

양옥경·송민경·임세와(2009). “서울지역 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137-168.

유영주(1979). “한국도시 가족의 부부간의 만족도 연구”.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논문집,* 4, 1-13.

_____(1984). “한국도시가족의 가족생활주기 모형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111-129.

_____(1994.). “건강한 가족을 위한 가족원의 역할”. *한국 아동학회 1994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이소래(1997). “사회적 지지가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상담연구* 5(1), 209-247.

이수연(1999). “부부의 가족주의 가치관 및 가족관계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유경(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분화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혜경 전혜인(2013). “결혼 이주여성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결혼 만족도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4).

임춘희(2013). "결혼 이주여성의 결혼 만족도와 송금의무감이 결혼책임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2), 167-194.

정승혜(1987).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결혼 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주연(2008). “베트남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가족관계와 이주여성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핵생연구논총,* 1, 228-262.

정진경 · 양계민(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 심리학회지,* 23(1), 101-136.

조유리 · 김경신(2000). “부부의 갈등대처행동과 결혼 만족도-광주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2), 1-21.

최운선(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6(1), 141-181.

최정혜(2005). “주말부부의 결혼 만족도와 가족건강성-주말부부 남편과 아내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3(3), 11-26.

_____(2006). “맞벌이 교사들의 결혼 만족도와 가족건강성”.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3), 163-173.

최희진 · 우영주(1999). “’가족기능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 Tavitian, Lubiner, Green, Grebstein, Velicer의 가족기능도척도(FFS)에 기초하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55-71.

함진옥 · 조인주(2012). “전북지역 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및 심리적 · 사회적 특성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24(3), 65-97.

홍미기(2009). “결혼 이주여성이 인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와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국통계청 2013.

현경자 · 김연수(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효과: 사회적 지지의 직접 및 조절 효과”. *한국심리학회지:여성*, 17(4), 653-677.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2003.

[국외문헌]

Alderete, E., W. A. Vega, B. Kolody and S. Aguilar-Gaxiola(2000). Effects of Time in the US and Indian Ethnicity on DSM-Ⅲ-R Psychiatric Disorders Among Mexican Origin Adult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s,* 188, 90-100.

Armes, K. and C. Ward(1989). Cross-Cultural Transitions and Sojourner Adjustment in Singapor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9, 273-275.

Babiker, I., J. Cox and P. Miller(1980). The Measurement of Culture Distance and Its Relationship to Medical Consultations, Symptomatology and Examination Performance of Overseas Students at Edinburgh University. *Social Psychiatry,* 15, 109-116.

Baltas, Z. and A. Stepto(2000). Migration, Culture Conflic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Turkish-British Married Couples. *Ethnicity and Health,* 5(2), 173-180.

Baron, R. M. and D. A. Kenny(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Battle, J.(1987). Relationship Between self Esteem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Report,* 4, 745-74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Beach, S. R. H., J. Katz, S. Kim and G. H. Brody(2003). Prospective Effects of Marital Satisfaction on Depressive Symptoms in Established Marriages: A Dyadic Model.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0, 355-371.

Beck, A. T.(1967). Depression: Cause and Treatmen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Beckham, E. E., W. R. Leber and L. K. Youll(1995). The Diagnostic Classification of Depression. In E. E. Beckham and W.R. Leber (Ebs.). *Handbook of depression* (2nd ed., 36-60*).* New York: Guilford.

Berry, J. W.(1988).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A Conceptual Overview Ethnic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With Immigrants, Refugees, Native Peoples, Ethnic Groups, and Sojourners. In J. W. Berry and R. C. Annis (Eds.). *Lisse, The Netherlands: Swets and Zeitlinger,* 41-51.

_____(1997)a.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5-34.

_____(1997)b.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J. W. Berry, Y. H. Poortinga and J. Pandey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 291-326.

_____(2005). Conceptur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In Acculturation, edited by Kevin M. Chun, Parmela Balls Organista and Gerardo Matin. Washinton D. C.: *Decade of Behavior,* 17-38.

Berry, J. W. and U. Kim(1987)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Cross - Cultural Psychology and Health: Towards Application.*

_____(1988)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I*n Health and Cross-Cultural Psychology,* edited by P. 124 R. Dasen, J. W. Berry and N. Sartouriusin: Newbury Park, CA, Sage, 207-23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Berry, R. E. and F. L Williams(1987).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Marital and Income Satisfaction: A Path-Analytic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107-116.

Brock, R. L. and E. Lawrence(2008). Chronic Role Strain and Marital Satisfaction: Does Spousal Support Adequacy Help Explain the Link?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 11-20.

Brown G. W. and T. O. Harris(1978). Social Origins of Depression: A Study of Psychiatric Disorder in Women. NY: Free Press.

Burr, W. R., G. K. Leigh, R. D. Day and J. Constantine(1979). Symbolic Interaction and the Family. In W. R. Burr, R. Hill, F. I. Nye, and I. 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2, 42-11). New York: Free Press.

Clark, T. and D. S. Pugh(2001). Foreign Country Priorities In the Internationalization Process: a Measure and an Exploratory Test on British Firms.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10(3), 285-303.

Choi, J., A. Miller and J. Wilbur(2009). Accultur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in Korean Immigrant Women. *Journal of Immigrant and Minority Health,* 11, 13-19.

Chu, H. H., O. I. Park, J. H. Kim and J. S. Park(2008). The Effect of Family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arital Adjustment For the Immigrant Woman's Husband.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3(4), 85-101.

Collins, D., C. Jordan and H. Coleman(1999). An Introduction to Family Social Work. Istaca, Il: F.E. Peacock.

Cottrell, A. B.(1990). Cross-National Marriages. *Journal of Contemporary Family Studies,* 21(2), 151-169.

Cuelar, I., B. Arnold and G. González(1995). Cognitive References of Acculturation: Assessment of Cultural Constructs in Mexican Americans.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3, 339-356.

Demes, K. A. and N. Geeraert(2014). Mearures Matter: Scales for Adaptation, Cultural Distance, and Acculturation Orientation Revisited.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5(1), 91-109.

Dunbar, E.(1994). The German Executive in the U.S. Work and Social Environment: Exploring Role Demand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6, 1-16.

Epstein, N., B. Bishop, D. Ryan, C. Miller and G. Keitner(1993). The McMaster Model View of Healthy Family Functioning. In Froma Walsh (Eds.), *Normal Family Processes* (138-160). The Guilford Press: New York/London.

Eustace and Rosemary William(2007). Factors Influencing Acculturative Stress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Doctor Dissertation). *Department of Family Studies and Human Services.*

Evans, J., A. Treadgold and F. Mavondo(2000). Explaining Export Development Through Psychic Distance. *International Marketing Review,* 17(2), 164-168.

Evans, J. and F. T. Mavondo(2002). Psychic Distance: The Construct and Measure.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Conference Proceedings, 13(Summer), 308-314.

Fincham F. D., S. R. H. Beach, G. T Harold and L. N. Osborne(1997). Marital Satisfaction and Depression: Different Causal Relationships for Men and Women. *Psychological Science*; 8, 351-357.

Flores, E., J. M. Tschann, B. V. Marin and P. Pantoja(2004). Marital Conflict and Acculturation Among Mexican American Husbands and Wive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0(1), 39-52.

Geeraert, N., S. Demoulin and K. A. Demes(2013). Choose Your (international)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Friends Wisely: A Multi-Level Analysis on the Impact of Intergroup Contact While Living Abroad.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Giddens, A.(1992) The Transformation of Intimacy: Sexuality, Love and Eroticism in Modern Societi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Gil, A. G., E. F. Wagner and W. A. Vega(2000). Acculturation, Familism and Alcohol Use Among Latino Adolescent Males: Longitudinal Relation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8, 443-458.

Gotlib, I. H. and V. E. Whiffen(1989). Depression and Marital Functioning: An Examination of Specificity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 23-30.

Hartman, A. and J. Laird(1983). Family-Centered Social Work, New York: Free press.

Hawkins, J. L.(1968). Associations Between Companionship, Hosti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0, 647-650.

Hawkins, J. L. and K. Johnsen(1969). Perception of Behavioral Conformity, Imputation of Consensus,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iage and The Family,* 31, 507-511.

Hovey, J. D. and C. A. King(1996).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Immigrant and Second-Generation Larino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S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5, 1183~1192.

Hovey, J. D. and C. G. Magana(2000). Acculturative Stress, Anxiety, and Depression Among Mexican Immigrant Farmworkers In the Midwest United States. *Journal of Immigrant Healthy.* 2(3), 83-102.

_____(2002)a. Cognitive, Affective, and Physiological Expressions of Anxiety Symptomatology Among Mexican Migrant Farmworkers: Predictors and Generational Difference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8(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23-237.

_____(2002)b. Exploring the Mental Health of Mexican Migrant Farmworkers in the Midwest: Psychosocial Predictors of Psychological Distress and Suggestions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Journal of Psychology: Interdisciplinary and Applied,* 136, 493-513.

Irina Suanet and J. R. Fons, Van de Vijver(2009). Perceived Cultural Distance and Acculturation Among Exchange Students in Russia.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9(3), 182-197.

Keyes, E. F.(2000). Mental Health Status Refugees: An Intergradative Review of Current Research, *Issues in Mental Nursing,* 21, 397-410.

Kiang, L., J. G. Grzywacz, A. J. Marín, T. A. Arcury and S. A. Quandt(2010). Mental Health in Immigrants from Nontraditional Receiving Site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6(3), 386-394.

Kim, Y. S.(2007). A Study on the Marital Happiness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 in Seoul.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1, 217-252.

Kim, G. S., B. J. Kim, S. S. Moon, C. G. Park and Y. H. Cho(2013). Correlates of Depressive Symptoms in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24(2), 153-161.

Krishnan, A. and J. W. Berry(1992). Acculturative Stress and Acculturation Attitudes Among Indian Im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Psychology and Developing Societies,* 4, 187-212.

Lazarus, R. S. and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ed.

Le Sage, M. R. and A. L. Townsend(2004). Acculturation and Depressive Symtoms in Mexican American Couples. *Journal of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10, 131-15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Lévi-Strauss, C.(1969). The Elementary Structures of Kinship. London, Eyre and Spottiswoode.

Lewis, R. A. and G. B. Spanier(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W. R. Burr, R. Hill, F. I. Nye, and I. 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2, 268-294. NewYork: The Free Press.

Merikangas, K. R.(1984). Divorce and Assortative Mating Among Depressed Pati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1, 74-76.

Mumford, D. B. and I. E. Babiker(1998). Validation of a Self-Administered Version of the Cultural Distance Questionnaire Among Young British Volunteers Working Overseas. *European Journal of Psychiatry,* 12, 244-253.

Negy, C. and D. K. Snyder(1997). Ethnicity and Acculturation: Assessing Mexican American Couples' Relationships Using the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Revised. *Psychological Assessment,* 9(4), 414-421.

O' Leart, K. D., J. L. Christian and N. R. Mendall(1994). A Closer Look At the Link Between Marital Discord and Depressive Symtomatolog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3, 33-41.

Oberg, K.(1960). Cultural Shock: Adjustment to New Cultural Environment. *Practical Anthropoly.* 7. 177-182.

Perez, M., Z. R. Voelz,, J. W. Pettit and T. E. Joiner(2002). The Role of Acculturative Stress and Body Dissatisfaction in Predicting Bulimic Symptomatology Across Ethnic Group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1, 442-454.

Radloff, L. S.(1977). The CES-D scale: A self 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Redfield, R., R. Linton and M. Herkovits(1936). Insanity, Memorandum On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49, 701-708.

Rice, D. G.(1979). Dual-Career Marriage: Conflict and Yreatment. New York: Free Press

Roach, A. J., L. P. Frazier and S. R. Bowden(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3(3), 537-546.

Rollins, Boyd C. and Harold Feldman(1970).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20-28.

Rounsaville, B. J., M. M. Weissman, B. A. Prusoff and R. L. Herceg-Baron(1979). Marital Disputes and Treatment Outcome in Depression Women. *Comprehensive Psychiatry,* 20, 438-490.

Schaefer, M. and D. Olson(1981). Assessing Intimacy: The PAIR Onventor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7, 47-60.*

Searle, W. and C. D. Ward(1990). The Prediction of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4, 449-464.

Simpson, J. and E. Weiner(1989).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Oxford: Clarendon.*

Sousa, M. P. Carlos and F. Bradley(2006). Cultural Distance and Psychic Distance: Two Peas in a Pod? *Journal of International Marketing,* 14(1), 49-70.

Torbiom, R. L.(1982). Uving Abroad. Personal Adjustment and Personnel Poky in the Overseas Setting. New York John Wiley & Sons.

Tran, T. V., V. Manalo and V. T. D. Nguyen(2007).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Length of Residence and Depression In a Community-Based Sample of Vietnamese American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Psychiatry, 53, 85-94.

Yun, Y. J.(2001). A Study on the Cultural Stress of the Korean-Chinese in Their Adaptation to the Korean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Ward, C.(1999). Models and Measurement of Acculturation. In W. J. Lonner, D. L. Dinnel. D. K. Forgas and S. Hays(Eds). *Merging past, present and future,* 221-230. Lisse, The Netherlands: Swets and Zeitlinger.

Ward, C., S. Bochner and A. Furnham(2001). The Psychology of Culture Shock. East-Sussex, UK: Routledge.

Ward, C. and A. Kennedy(1993). "Where's the Culture in Cross-Cultural Transition? Comparative Studies of Sojourner Adjustment."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4(2), 221-249.

_____(1999). The Measurement of Sociocultural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3, 659-677.

_____(2001). Coping with Cross-Cultural Transi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2(5), 636-642.

Weissman, M. M., G. D. Gammon, K. John, K. R. Merikangas, V. Warner, B. A. Prusoff and D .Sholomaskas(1987).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Increased Psychopathology and Early Onset of Major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4, 847-85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부록 > 설문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결혼 이주여성의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귀하의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결혼 이주여성들이 행복한 결혼생활이 될 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료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 살면서 느낀 점을 솔직하고 성실하게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본 연구의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귀하의 정보를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5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과정 : 보티 펑후엔
지도교수 : 정 형 식

E-mail: huyenvo@naver.com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❶. 귀하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해당항목에 √ 표 하거나 괄호 안에 기입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출신국가 어느 나라입니까? _____

2.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도시 및 지역명: ex) 무주군, 천안시 _____

3. 귀하와 귀하의 남편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본인_____세, 남편_____세)

4. 귀하와 귀하의 남편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본인____, 남편____)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학교 졸업 ④ 대학교 재학 및 졸업 ⑤ 대학원 이상

5. 귀하와 귀하의 남편의 직업은 어느 것입니까?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본인_____, 남편_____)
① 단순노무직(농업) ② 판매, 서비스직 ③ 사무직, 공무원
④ 관리직, 전문가, 사업 ⑤ 전업주부 ⑥ 기타(_____)

6. 귀하가 귀하의 남편과 결혼을 언제 했습나까? (_____년 __월)

7. 귀하의 한국어 능력수준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거의 이해하지 못함 ② 간단한 단어를 말하는 정도
③ 생활에 필요한 짧은 대화가 가능한 정도
④ 생활에 불편함 없이 말할 수 있는 정도
⑤ 거의 모든 상황에서 불편함 없이 말할 수 있는 정도

8.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불교 ② 가톨릭 ③ 기독교 ④ 종교 없음 ⑤ 기타(_____)

9. 귀하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셨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10. 귀하는 남편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① 친구, 친척 등의 소개 ②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③ 종교기관을 통하여
④ 기타(_____)

11.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은 어떻습니까?
① 남편과 나 ② 남편과 나와 자녀(___명)
③ 남편, 나와 시댁가족 ④ 남편, 나와 자녀, 시댁가족
⑤ 기타 (_____)

12. 귀하와 귀하의 남편의 월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본인____, 남편____)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③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④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⑤ 300만원 이상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❷ 귀하가 결혼하기 전 생활했던 국가와 현재 생활하고 있는 한국과는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비슷하지 않음.		보통		매우 비슷함
1	날씨 및 기후조건	①	②	③	④	⑤
2	의사소통	①	②	③	④	⑤
3	생활 습관 및 풍습	①	②	③	④	⑤
4	대중교통 및 문화시설이용(극장, 쇼핑)	①	②	③	④	⑤
5	음식문화 (조리법, 식사예절, 식사시간 등)	①	②	③	④	⑤
6	가족관계 (가족 구성원 간에 친밀한 정도)	①	②	③	④	⑤
7	외국인에 대한 태도	①	②	③	④	⑤

❸ 귀하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생활하는데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적응하지 못함.		보통		매우 잘 적응함
1	날씨 및 기후조건	①	②	③	④	⑤
2	의사소통	①	②	③	④	⑤
3	생활 습관 및 풍습	①	②	③	④	⑤
4	대중교통 및 문화시설이용(극장, 쇼핑)	①	②	③	④	⑤
5	음식문화 (조리법, 식사예절, 식사시간 등)	①	②	③	④	⑤
6	가족관계 (가족 구성원 간에 친밀한 정도)	①	②	③	④	⑤
7	외국인에 대한 태도	①	②	③	④	⑤

❹ 귀하는 한국문화에 접근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고향을 떠나 낯선 이국땅에서 생활하는 나 자신이 슬프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려면 긴장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가족들이 내말을 못 알아들어 안타깝다.	①	②	③	④	⑤
4	한국 사람들은 나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한국생활에서 한국 사람들과 다르게 취급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6	한국문화에 적응하기가 힘들다.	①----②----③----④----⑤
7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를 괴롭힌다.	①----②----③----④----⑤
8	나는 고향의 부모와 친척들을 남겨두고 떠나온 것이 후회스럽다.	①----②----③----④----⑤

❺ 귀하의 지난 2주일 동안 아래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자주 나타납니까?

	문 항	전혀 느끼지못함	아주 가끔	가끔 느낌	종종 느낌	항상 느낌
1	일상적인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⑤
2	먹고 싶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3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4	무슨 일을 하던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5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⑤
6	내 인생은 실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7	두려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8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⑤
9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11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①----	②----	③----	④----	⑤
12	슬픔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13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14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❻ 다음은 가족관계 친밀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 가족과 가장 가깝다고 느끼시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번호	우리 가족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끼리 대화가 잘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각자의 감정을 가족들에게 마음을 열고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각자의 친한 친구들을 서로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①----②----③----④----⑤
5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좋아한다.	①----②----③----④----⑤
6	서로 친밀하게 느낀다.	①----②----③----④----⑤
7	서로 솔직하고 정직하다.	①----②----③----④----⑤
8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준다.	①----②----③----④----⑤
9	서로에게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①----②----③----④----⑤
10	문제를 함께 잘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①----②----③----④----⑤
11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②----③----④----⑤

❼ 다음은 귀하의 결혼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번호	나의 결혼 생활에 대해 . .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현재 결혼생활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남편은 나를 많이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4	남편과의 성생활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와 남편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한다.	①	②	③	④	⑤
6	결혼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7	남편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